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월 31일(음력 12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 613 호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포교전문가 양성 '시동'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지도사…' '불교상담…' 등 규정 마련

조계종 포교원이 각 분야의 포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

포교원은 1월 24일 제2차 포교원 회의를 열고 '어린이 지도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포교원은 이에 앞서 10일 제1차 회의에서 '불교상담심리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정'도 확정했다.

이 두 규정은 포교원이 지난해 11월 제정한 '종단 포교 자격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린이 및 불교상담 지도자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취임인터뷰를 통해 "포교원을 시스템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 후 나온 것이어서 포교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어린이 지도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대한불교교사대학 졸업자에게만 주어지던 응시자격의 폭을 확대하며, 종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린이 지도사 응시자격은 △종단으로부터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의 졸업자뿐만 아니라 △유치원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거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신도법 제15조의 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한 자 중 어린이 포교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어린이 포교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어린이 포교 활동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 해당 사찰 주지가 추천한 자도 포함된다.

어린이 지도사는 사찰 및 어린이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어린이 포교 및 어린이 법회 지도를 해야 하며, 매년 말 포교원에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또 포교원 및 포교원 등록단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포교와 관련한 연수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자격고시는 연 1회 시행되며 서류전형, 필기전형(불교상식, 어린이 포교 일반, 기타), 면접 및 실기전형으로 이뤄진다. 이 규정 전에 대한불교교사대학에서 시행한 어린이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 이하 개발원)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불교상담심리사 자격증 제도는, 종단 차원에서 불교적 소양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불교상담심리사란 개인 또는 단체의 생활 · 심리적 어려움을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3월부터 2년 과정의 '불교상담대학'을 운영한다. 1990년 문을 연 '자비의 전화' 상담원 양성 교육기관이 4년 전 '불교상담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후, 이번에 조계종 포교원 인가 특수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선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불교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며,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교상담심리사 1급, 불교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계종 신도등록을 마쳐야 한다.

교과 과정은 교리와 역사 등 불교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과목과 상담 전문 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서울노인복지센터 교육장에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진행된다. 자비의전화 상담원이나 포교사, 종무원, 종단 스님 등에게는 등록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포교부장 동범 스님은 "어린이 지도사와 불교상담심리사 외에도 선포교사, 선심리상담사, 청소년 지도사에 관한 규정도 곧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장학금 1억원을 어린이 포교 지도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 여수령 기자



불교교권수호협의회(상임대표 정각)가 주최한 '종교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수호대법회'가 1월 23일 부산 KBS홀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 경남 500여 사찰에서 650여 명이 넘는 스님과 7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종교평화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결집하는 자리가 됐다. 관련기사 4면 부산=천미희 기자

교권수호 한 뜻으로…

국제 교류 교구본사 8곳

조계종 사찰 · 단체 교류현황 자료집 나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은 15곳, 불교계 단체는 11곳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이 발간한 〈종단 국제교류 현황 주요 불교국가 불교현황 조사 자료집〉에서 드러났다.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교구본사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동화사, 월정사, 대흥사, 법주사, 조계사였다. 24교구본사 중 33.3%인 8개 교구본사가 국제교류를 하는 셈이다.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사찰은 도선사,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안국선원, 대원사, 표충사, 백련암 등 7곳이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비구니회, 대한불교진흥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국제포교사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JTS, 지구촌공생회, 우리는선우, 병원불자연합, 불교여성개발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11곳의 불교계 단체는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 등 주로 동서남아시아 국가들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었다. 남동우 기자

사고

예비수험생·학부모님
'자비명상'으로 만점 도전!

본사는 예비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빚어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 스님 자비명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강좌는 부처님께서 장자 아들에게 설하신 〈육방예경〉에 근거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가 스님은 공주 마곡사에서 포교국장으로 재직하며 4년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 마곡사를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앙대 겸임교수로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사 : 마가 스님 ● 장소 : 대치3동 대치3문화센터
● 참가인원 : 100쌍(200명) ● 시간 : 매 회 오후 3시~5시(2시간)
● 연락처 : (02)2004-8279, 011-737-2658
● 참가비: 1인 2만원

회차	날짜	장소
1차	2월 10일	대치3문화센터
2차	2월 11일	대치3문화센터
3차	2월 24일	대치3문화센터
4차	2월 25일	대치3문화센터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I love Buddha / 긍정이라는 씨앗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인물經 세상鏡

'마실' 다녀가듯 떠나간 박찬 시인

언론인으로 문인으로 소탈한 불자의 삶을 살아 온 박찬 시인(본지 논설위원). 1월 19일 그는 이 세상을 '마실' 다녀가듯 그렇게 떠나갔다. 언제나 여유 있는 표정으로 세상을 관조하듯 바라보던 그의 잔상은 지인들의 가슴에 오래 머물 것이다.

만 58세. 꺾기엔 너무나 아쉽고 절통한 나이에 그를 데려간 것은 간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제1위가 암이다.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암 때문에 사망하는데 하루 179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암은 어디서 오는가? 의학적인 원인 규명이 어디까지 진척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식습관, 흡연 등을 암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박찬 시인도 지난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영상등급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바다 이야기' 사건과 관련 상당한 고초를 겪어야 했다. 문상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박 시인은 바다에 빠진 거다'였다.

"행여, 그를 만나거든/나, 왔다 갔다고 전해주게/못보고 그냥 갔다는 말도 함께/ 덕분에 재미있는 것도 많이 보고/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갔다고/ 이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오겠노라고…."

(박찬의 시 '마실' 부분)

누구나 재미있는 것 많이 보고 맛난 것 많이 먹고 다녀가고 싶은 '마실'. 그러나 탐욕과 욕망 집착이 득실거리는 마실. 더많은 것을 보려하고 더 많이 먹겠다는 욕심이 암이 되어 생명을 앗아간다. 살펴보라. 당신은 지금 탐욕과 스트레스의 '바다'에 빠지지 않았는가?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전국에 계신 종도 여러분과 신도제현 여러분께!

"시비가 있는 곳에 머리를 두지 말라(是非窟前莫回頭)"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간의 시비분별에 빠지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범어사가 되기 위해 그동안 범어사는 온갖 뉴스나 괴소문 등에 대해서도 묵빈(허물이 있는 사람이 제 스스로 뉘우칠 때 까지 기다리자는 자비스러움)하였으나, 검증이나 확인, 보고 되지도 않은 보고서 등 각종 종단 내부 자료를 일반 언론에 고의적으로 유출시켜 온갖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더 이상 불제자의 미덕인 묵빈(默擯)만 고집하고 있을 수 없음을 전국의 종도 여러분과 불제자 여러분들께서는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종도 여러분! 전국에 계신 불제자 여러분!

현 주지 대성스님이 부임한 이래 범어사는 아름다운 자연과 불교문화유산의 전파뿐만 아니라 수행전통까지 시민과 함께 하고자 '개산대제'를 '문 없는 문을 열다'라는 내용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고, 선찰대본산의 위상에 걸 맞는 '설선대법회' 및 '고승대법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불자들께 주최할 수 없는 환희심을 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어사를 문중의 일부 스님들과 종단의 일부 스님들께서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는 범어사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이들 일부 스님들 께서 제기하는 의혹을 밝혀 드립니다.

■ 세계선문화타운 조성계획에 관하여

범어사가 세계선문화타운 조성계획을 구상했던 것은 21세기 세계의 이목이 동양의 정신문화에 집중되고 있는 때를 같이하여

① 한국불교 정신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禪을 통한 세계인의 두뇌를 리드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범어사만의 사업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미래사업으로 판단하여 추진계획을 세워 봤으나 이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우선적 해결사항이 많아 범어사에서는 현재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우려하고 있는 토지매입차 지불된 계약금 15억원은 1만평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 되어 있고(2005. 5. 20), 6만6천평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2006. 5. 17. 부산지법 제14민사부)로 법적으로 보전장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이 토지를 범어사에서 매입하여 소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더 이상 도시팽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천년고찰 청정수행도량 범어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④ 그동안 팔 줄만 알았던 범어사가 토지를 사들여 사찰을 보호 하고자 하는 측면은 배제하고 시비를 조장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 문도총회 복원결의 공고에 관하여

2007년 1월 17일 오후3시 부산 농심호텔에서 모인 '범어사 문중복원을 위한 문도회의'는 문중의 최고 어른이신 조실스님의 허락도 없이 이루어진 여법하지 못한 모임이고, 종헌.종법을 상위 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 지금은 폐기된 '범어사 운영규범'에 의해서 50여명의 문도가 모였다면 이것은 분명히 종헌.종법을 위배한 해종 행위입니다.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조항이 많아 지금은 폐기된 '범어사 운영규범'은 1,3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어사를 대중공의와는 무관하게 몇몇의 스님들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第19條 (산중총회와 문도총회와의 관계)
주지 추천을 위한 산중총회는 문중회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관계로 정리한다.

第20條 (주지, 종무소 국장과 이 규범과의 관계)
① 주지나 종무소 국장이 종헌. 종법과 기타 법률을 이유로 이 규범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기로 한다.

위 두 조항에 의하면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는 '조계종'이 아니라 '범어종'이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는 엄연히 종단의 종헌. 종법을 무시한 독재적이고 비민주적 위배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여법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범어사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의 승인 없이 집행된 선암사(부산 진구 부암동) 토지 수용금 14,082,469,123원을 유출한 경위 등을 파악하여 삼보정재를 수호하고, 국고반환소송 등으로 실추된 범어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 범어사 주지스님과 집행부에게 만에 하나 허물이 있다하더라도 사회법이나 언론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는 마치 타종교 단체가 'AGAIN 1907 IN BUSAN' 행사에서 부산.경남 일원에 '창궐'하는 불교와 모든 '사찰이 다 무너지도록' 기도대회를 갖는바와 진배없는 해종 행위이므로 종헌.종법에 의하여 여법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51. 1. 25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사부대중

interview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수행 · 전법으로 정진하는 종단될 것"

23일 신년기자회견…4대 비전 · 20대 핵심사업 구체안 내놔

조계종이 올해 화두로 '수행종풍 회복과 전법'을 제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은 1월 23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를 위해 종풍 진작과 수행승가 진흥, 대중 원융살림 회복, 전법과 복지 진흥,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수행종가 등을 4대 비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호법기능 강화를 위해 종단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종단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보면 많은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올해 감사 · 호법 기능을 강화해 자정기능을 향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종헌종법을 위반하는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히 의법 조치할 것입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관람료를 받으려는 사찰의 입장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문화재관람료 때문에 비리가 생긴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져 발생한 문제입니다. 또한 총무원은 끌려가거나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환경부 장관, 문화재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과 함께 공동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으니, 잘 풀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 종교계의 선거참여 정도가 관심을 끕니다. 대선에 대한 조계종 차원의 입장은.

"대통령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종교를 비롯해 학연, 지연에 얽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후보 중 가장 훌륭한 이가 뽑히기를



바랄 뿐이지요. 차기 대통령에게 바랄 것이 있다면, 내재돼 있는 종교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불교도연맹의 방북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취임 직후 방북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방북 직전 을지훈련을 한다며 오지 말라고 해서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가을 신계사 대웅전 낙성 때 북측 불교대표로부터 방북요청을 받았으나 일정상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신 3월에 있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달고 초청해 놓았습니다."

한편 조계종은 올해 △포살 · 자자 정례화 △종장회의 설치 △봉암사 결사 60주년 사업 △소임의 무화 제도 추진 △노후복지 제도화 △종단 자정기능 향상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진흥 △신도시 거점 전법도량 건립 추진 △간화선 대중화사업 △한국전통사상서 영역사업 △전법회관 및 문화관 건립 등 20개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선 · 교 · 율을 대표하는 종장들이 참여하는 종장회의 설치, 봉암사 결사를 잇는 종풍 진작, 선원 안거뿐만 아니라 본말사 종무, 포교, 복지, 기도 분야의 수행이력 인정,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집중 지원, 신도시 포교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이 올해 새롭게 시행돼 수행과 전법 종단으로서의 위상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종교간 이해 · 존중이 중요"

정산 스님, 이명박 前 서울시장에 '조언'



"다종교사회의 국민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위정자 입장에서 어느 종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1월 20일 서울 관문사에서 이명박 前 서울시장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조언했다(사진). 스님은 "지난해 6월 '사찰이 무너져라' 기도한 부산 개신교 청년집회와 관련해 1월 23일 부산에서 범불교수호대회가 열린다"면서 "종교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면 화합되고 참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前 시장은 "부산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개신교 신도들은 물론 온 국민에게 창피하고 송구한 일"이라며 "개신교계 목사 대부분도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소수의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前 시장은 "무심코 의미 없이 한 말과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정산 스님은 "1월 16일 상월원각대조사 탄신일에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구인사를 찾아 불교의 예를 따라 제를 지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그나마 불교와 천주교간에는 교류가 활발한데 비해 개신교 측과 왕래가 뜸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천태종 재무부장 도재 스님, 사회부장 무원 스님, 총무국장 월도 스님 등이 배석했다.

김원우 기자

국립공원 ·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조계종 · 문광부 · 환경부 등 10인 위원 참여 … 매월 정기회의

조계종과 정부가 국립공원과 사찰문화재 관리 등 전반에 걸쳐 협의할 공동기구를 구성했다.

조계종과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국립공원과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제도개선협)'를 구성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 등 종단대표 3명과 환경부, 문화관광부 국 · 과장 등 정부측 7명이 제도개선협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도개선협은 매월 정기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종이 국 · 공립공원 해제와 문화재 관리 · 보수 예산 증액 요구 등 핵심현안 5가지를 의제로 제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10월 31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 때부터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꽃길 걸으며 마음 닦아요"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국 12곳서 '걷기선' 수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제주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꽃길과 함께 하는 걷기선(禪) 수행을 실시한다.

꽃길과 함께하는 걷기선(禪) 수행은 불교수행법의 대중화와 지역 불교조직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성찰' '화합' '정진'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3월 18일 제주 카멜리아힐 △24일 부산 UN묘지 △25일 진해 군항제 장소 △31일 광주 무각사, △4월 1일 울산 태화공원 △7일 대구 두류공원 △8일 전주 수목원 △14일 대전 한밭수목원 △15일 수원 화성 △21일 강릉 △22일 서울 하늘공원 △29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신도회관 건립과 관련, 설계사무소를 선정해 기본 설계안을 심의중에 있으며 2007년 10월까지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711.95평 규모로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대표이사에 정산 스님

천태종 복지재단

천태종 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선출됐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1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복지재단 상임이사 무원 스님, 신임이사 도정 스님 등을 임명했다. 이사회는 올해 3대 중점 사업으로 △전문적 복지시스템 구축 △복지사업강화 △천재지변 피해 특별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법인을 비롯한 7개 산하시설의 올해 예산을 58억여원으로 확정했다. 김원우 기자

구족계 · 식차마나니계

4월 2 · 9일 직지사서

조계종 총무원과 고시위원회는 올해 전반기 치러질 수계산림과 각급 고시를 공고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김천 직지사에서 4월 2~8일 제27회 구족계 수계산림, 4월 9~11일 제15회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을 연이어 봉행한다. 또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3월 23일과 27일 각각 4급, 5급 승가고시를 김천 직지사와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실시한다.

구족계는 예비스님인 사미 · 식차마나니가 정식스님이 되기 위해 거치는 수계과정이다. 박봉영 기자

총지종 새 통리원장 원송 종사 인준



불교 총지종은 1월 25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중앙종의회를 개최하고 제 15대 통리원장으로 중앙종의회 의장 원송(園松) 종사(사진)를 인준했다.

원송 종사는 1990년 덕화사 주교와 지송급 법사 품수를 시작으로 91년 항마급 대법사, 96년 청정지 정사, 2001년 밀인지 대정사, 2006년 4월 출세간위 종사를 품수 받았다.

6대, 7대 중앙종의회 의원, 사감위원 총지종 유지재단 감사와 이사, 서울 경인 교구장,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 전당건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 삼밀사 주교에 재임하고 있다.

한편 불교총지종 제15대 통리원장 원송 종사 취임식은 1월 29일 오후 3시 총지사 서원당에서 열렸다.

이에앞서 총지종은 오후 2시 총지사 원정대정사기념관에서 제100주년 종조탄신기념 '종조탄신대재'를 봉행했다. 김원우 기자

제주 관음사 주지 직대 진명 스님 임명

제주 관음사가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지 못함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를 연장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월 23일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에 前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을 임명했다.

관음사는 지난 9월 실시한 산중총회에서 용주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으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중총회법을 위반했다며 당선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0월 용주 스님을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관음사는 11월 다시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를 선출하려 했으나, 23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부 후보가 후보등록을 거부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중앙선관위가 재선거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관음사는 주지 선출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주지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치러진 제14대 중앙종회의원선거에서도 직선직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입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 9주 1월 25일 - 1월 31일 [15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월 25일[목]	광양읍	-	별량면	20km
1월 26일[금]	별 량	-	열가재	22km
1월 27일[토]	열가재	-	보성읍	22km
1월 28일[일]	보성읍	-	장흥읍	27km
1월 29일[월]	장흥읍	-	강진읍	21km
1월 30일[화]	강진읍	-	학 산	26km
1월 31일[수]	학 산	-	목 포	20km

제10주 2월 1일 - 2월 7일 [151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 1일[목]	목포시	-	무안읍	25km
2월 2일[금]	무 안	-	신광	23km
2월 3일[토]	신 광	-	영광읍	17km
2월 4일[일]	영 광	-	고창읍	25km
2월 5일[월]	고 창	-	줄포	22km
2월 6일[화]	줄 포	-	부안읍	19km
2월 7일[수]	부 안	-	김제 자혜사	20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

서울 한 복판에 '佛' 오신다

불교중앙박물관 3월 26일 개관…특별전 '한국불교 1700년…' 개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3월 26일 문을 연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1층~3층에 들어설 박물관은 전시실(360여평)을 비롯해 수장고(100평), 학예연구실(50평), 뮤지엄샵 및 다실(50평), 보존처리실(30평) 등 5개 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상설전시 및 특별전, 불교미술대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우선 박물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전시공간은 상설전시실 3개와 시청각실, 전시준비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각종 유물을 보관하게 될 3개의 수장고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3층에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상설 전시되거나 전국 사찰에서 전시를 의뢰한 성보문화재를 보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람객들이 기념품을 사거나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뮤지엄샵과 다실 등도 마련해 놓아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한국불교문화를 총체적으로 알리고자 3월 26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개관특별전 '한국불교 1700년 삼보특별전Ⅰ-불(佛 · Buddha)'을 개최한다. 특히 성보를 미술품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전시물 자체가 하나의 예배대상이 될 수 있도록 차별적 전시물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제 1전시실에는 '자력신앙-고타마 싯다르타에서 붓다로, 깨달음을 얻다'를 주제로 금동여래좌상(국보 182호)과 안압지 판불(보물 1475호) 등이 봉안된다.

제 2전시실에는 '타력신앙-부처의 힘을 빌려 극락왕생하다'로 아미타불과 약사불 등 불보살들이, 제 3전시실에는 오대진언 관음 42수 등 다불신앙과 관련된 작품들이 선보인다.

사찰, 국 · 공 · 사립박물관 대여유물 등 15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은 3월 26일 개관기념법회에 이어 일반인들은 3월 27일부터 관람 가능하다. 입장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략 2천~3천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주완 문화재팀 행정관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불교중앙박물관의 개관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성보문화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박물관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보존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성보문화재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주완 행정관은 "2008년에는 삼보특별전Ⅱ-법(法)을, 2009년에는 삼보특별전Ⅲ-승(僧)을 시리즈로 기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에는 1월 18일 첫 전시물로 철단조 사천왕상이 봉안됐다. 이 사천왕상은 철을 단조해 만든 부조로 박물관측이 직접 디자인하고 유명 금속공예가 이근세(37)씨가 제작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과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이 창건주 지증 대사 적조탑 앞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수행결사 60년 도량 정진열기 '후끈'

지관 스님 봉암사 방문

동안거가 한창인 1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종립특별선원이 있는 문경 봉암사를 찾았다. 1948년 성철, 청담, 법전 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결행했던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아 수좌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리고 격려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지관 스님은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 주지 함현 스님을 만나 "수좌들은 조계종의 기둥"이라며 "진여자성을 밝히고 세상과 인류를 밝혀 달라"고 격려했다.

현재 봉암사에서는 10개월간 하루 12시간씩 화두를 참구하는 '10개월 결사' 대중 20명과 하루 10시간씩 정진하는 안거대중 21명, 기본선원 안거대중 등 80여 스님들이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문경 봉암사=박봉영 기자

둥글고 밝은 복지세상 만든다

진각복지재단,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사업안 발표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회정)이 올해 진각종 창종 60주년과 내년 복지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각복지센터 건립' '진각보기 60 프로젝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한다.

진각복지재단은 올해 사업지표를 '모두가 함께하는 둥글고 밝은 복지세상 만들기'로 삼고 △사회양극화 해소 △종단 · 법인 · 시설이 함께하는 복지 △문화 · 교육 · 연구라는 세 가지 큰 사업 줄기를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진각복지센터' 건립. 현재 진각복지재단이 위치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2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세우고 노인전문 요양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 봄 착공해 12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이다. 복지센터 1층에는 '진각혜민소(가칭)'를 마련해 저소득 가정 지원과 무료법률상담 등의 사업을 펼친다. '혜민소'는 조선시대 의약과 서민 구휼을 담당했던 '혜민서(惠民署)'의 정신을 잇기 위해 마련한 부서다. 진각복지센터 건립에는 국비 약 15억원, 시비 약 15억여원, 진각종 자체 재원 등 총 45억원이 투자된다.

4월 중으로는 현재 완공 단계에 있는 포항시 남구의 '포항실비노인요양원'을 개원하고, 5월에는 미혼모시설(양육모그룹홈)이 문을 연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자원봉사 60시간 실천하기, 종립학교 불교학생회를 통한 독거노인 60명 '한가족 맺어주기', 신규 시설 개원 등을 통한 60명 일자리 창출, 산하 13개 지부와 함께 펼치는 60가정 결연 맺기 등이 진행된다. 또한 복지재단 직원을 중심으로 생명나눔운동 60명 동참, 종단 성직자 60명의 노인유사체험 및 자원봉사 등도 마련된다.

그동안 진각복지재단이 공을 들여왔던 폐사지 투어콘서트, 소외된 문화재 돌보기 사업 등 '문화복지'도 계속 이어진다.

여수령 기자

"불교자정기구 설립합시다"

불교환경연대 등 3단체, 종단차원 설립 제안

불교계 3개 단체들이 종단에 만연한 도덕불감증과 자정기능 상실을 비판하며, 불교단체 및 기구가 참여하는 종단 차원의 '불교 자정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 성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준비위원장 만초)는 1월 24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곡사 주지 구속, 흥천사 토지 불법매매 건 등 종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차근차근 풀기 위해 종단 자정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총무원과 중앙종회, 호계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계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상설화된 종단 차원의 자정 기구 설립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친자연 탐방 유도 · 생태해설 등 도입해야

천태종 소백산지킴이운동본부 공개토론회서 '제안' 쏟아져

백두대간의 허리인 소백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자연적 탐방을 유도하는 산행교육과 프로그램 도입, 생태 해설 리플렛 및 소책자 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태종 소백산지킴이 운동본부(본부장 무원, 천태종 사회부장)가 1월 25일 단양관광호텔에서 개최한 '소백산의 생태 · 환경적 가치와 보존을 위한 역할 과제'란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조우 상지대 환경생태학부 교수가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교수는 "최근 생태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소백산이 이용객 증가에 따른 등산로 내 암반노출, 노면침식, 나무뿌리 노출 등으로 자연의 이차적 훼손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하돈 백두대간연구소장은 소백산 생태계와 경관 복원, 주민들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을 두 축으로 △등산로 관리 △입장객 수 조절 및 교육 △밀렵 및 불법채취 방지 △산림훼손 방지 △사찰 및 산촌마을의 환경관리와 함께 난개발과 오폐수 문제 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백산지킴이운동본부가 1월 25일 단양관광호텔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관진 환경참여연대 사무총장과 방병철 우리무궁화사랑회 자문위원은 "소백산 보존운동은 규제보다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생태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사회국장은 "죽령을 넘어가는 5번 국도의 아스콘을 걷어내고 소백산 마을을 오갈 수 있는 옛길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유기준 상지대 환경생태학부 교수는 "남북에 걸쳐있는 백두대간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용 스님(소백산지킴이운동본부 연구위원)은 "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 연구조사를 벌여 파괴된 생태를 복원하고, 지자체와의 협조 아래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등 추가훼손 방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단양=김원우 기자

고속도로변 '종교광고물' 안녕~

고속도로변에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길희성)은 서울 서초구청(구청장 박성중)과 충북 청원군(군수 김재욱)측이 관내 고속도로변에 있는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게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월 26일 밝혔다.

서초구청과 청원군 관내 고속도로변에는 고려은단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Jesus Love You'라는 내용이 표기돼 있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근거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초구청 도시정비과는 "위헌소지가 있다면 추후 이러한 내용의 표기는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청원군도 "추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시 정확한 법적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및 홍보하겠다"고 23일 답했다.

이 옥외광고물들은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에 의해 설치한 광고물로, 지난해 12월 31로 시한만료 됐기 때문에 올 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공군 군종병과장 김재철 법사 취임



공군 군종병과장에 김재철 법사(선근 · 사진)가 취임했다.

1월 21일 계룡대 호국사 대법당에서 열린 취임법회에는 대전 만불선원 회주 진철,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 정인악 군불교후원회장, 계룡대 호국사 통합신도회장 이봉원 장군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진철 스님은 "사부대중 모두가 군불교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룰 수 있다"고 법문했다.

김재철 법사는 취임사를 통해 "취임의 기쁨보다는 어깨가 무겁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병과장으로 최선을 다해 사부대중 모두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불교신문 주1회 축소발행 결정에 따른 노동조합 성명서

창간 47주년, 불교의 소식을 제방 곳곳에 전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이려는 청담대종사의 원력으로 창립된 불교신문은 그동안 제방의 스님과 사부대중, 그리고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월간에서 격주간으로, 다시 주간으로 전환되고 지난 2003년에는 주2회 발행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 사실상 사문화 됐던 기관지령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시간여의 논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지시된 내용은 "2월1일부터 주1회로 전환하라"는 통보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노동조합은 실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의문이다. 불교신문의 경영을 책임진 사장스님을 비롯해 내부 구성원 그 누구도 명단에 없이 총무원 부실장스님과 교구본사 몇몇 스님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1시간만에 불교신문 경영과 운영 전반을 살피고, 체제 전환을 지시했다는 점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3년간 수차례에 걸쳐 경영진에 대해 단기적 · 중장기적 경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 왔다. 4년동안 임금이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또한 상여금이 수일~한달까지 지연지급되는 현실을 묵묵히 수용하면서 회사와 불교의 발전을 염원해 왔다.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취재와 제작, 영업업무를 진행하면서도 각자의 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근거없는 경영진단과 주1회 전환에서 오는 영향등에 대한 평가도 없이 무조건적인 주1회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로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 2002년 주1회에서 주2회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 구성원들은 1년여의 시간동안 숙의에 숙의를 거듭했다. 이는 단지 발행 횟수가 한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 운영시스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일인 까닭이다.

경영진에서는 주1회 전환의 주된 이유를 경영수지 악화로 꼽고 있다. 하지만 주1회 축소발행을 통해 발생되는 지출감소 요인은 신문제작비, 발송비로 약 1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에따른 광고매출 축소와 독자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액은 최소치로 추정해도 지출 감소액을 상회한다.

더구나 2006년 8월 회사측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93%에 이르는 본지의 현실은 여타 주간지, 월간지 어느 곳과 비교해도 매우 양호한 실정이다. 오히려 주1회 전환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불교신문 노동조합은 그동안 신문사와 노동조합은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으로 구독확장에 적극 참여하는 등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준해 건전한 노사간 문화를 이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사이 이런 문화는 상실됐으며, 급기야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경영진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성실단체교섭의 의무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인 결정으로 회사를 파행으로 이끌려 하고 있다.

불교신문은 한 사찰이나 단체가 만드는 사보가 아니다. 조계종 전 종도의 염원을 담아 창간됐으며, 또 발전해 온 언론이다. 또한 2천만 불자에게 불교의 가르침과 소식을 전하는 매체이다.

신문사의 전 구성원은 대책과 명분도 없는 주1회 전환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길 거부한다. 또한 불교신문 구성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2천만 불자의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에 경영진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주1회 전환의 근거와 타당성을 밝혀라.
- 경영 악화를 이유로 주1회 축소발행을 결정한 것과 관련, 지난 3년간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사장스님의 입장을 밝혀라.
- 운영위원은 기관지령에 명시된 역할에 따라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기적 · 중장기적 경영비전을 제시하라.
- 시대에 뒤떨어진 기관지령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불교신문이 언론으로서, 문서포교의 선도자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라.

불교신문사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정법 수호 · 포교 매진 하자”

불교교권수호협의회, 23일 부산 KBS홀서 대법회

7천여 사부대중 교권수호 의지 모아 호법단 결성

“사찰이 무너져야 평화가 온다면 내 이 손으로 무너뜨리리.”

‘종교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수호대법회’가 열린 1월 23일. 이 문구가 정법 수호를 위한 불자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 부산 KBS홀을 가득 채운 7000여 사부대중의 내면에도 아로새겨졌다.

불교교권수호협의회(상임대표 정각)가 주최한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통도사 삼광사를 비롯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법화종, 총지종, 해인종 등 종단과 부산 경남 500여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대거 참석했다. 650여명을 넘는 스님과 7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는 근래 부산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의 인원이 동참해 종교평화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결집하는 자리가 됐다.

3시부터 식전행사로 바라밀무용단과 들소리타악연주단의 ‘불구정토의 길’이라는 공연이 50여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어진 본행사는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조직위원장 정여 스님의 고불문,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사무처장 자인 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상임대표 정각 스님의 대회사로 이어졌다.

정각 스님은 “타종교를 이유 없이 부정하는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이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스스로의 근본을 부정당하는 지금 파사현정의 정신을 굳건히 세워 우리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범어사 주지 대성 ·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산옹 ·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손정현 회장은 연설을 통해 “자비라는 이름으로 벙어리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이분법적 사고로 다른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죽은 종교임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단 한사람에게라도 더 법을 전하기 위해 전법의 길을 걷고 또 걸었던 부처님처럼 정법 수호와 포교에 매진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지난해 6월 열렸던 ‘Again 1907 in Busan’ 동영상과 훼불 사례들을 접한 뒤에는 참담함과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법회는 불자들의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불교수호대법회의 참다운 취지와 의미를 살려내는데 힘을 모았다.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집행위원장 범산 스님과 학인스님들의 집전으로 20여 분간 이어진 ‘관세음보살’ 정근은 7000여 불자들의 정법 수호 의지를 하나로 모아냈다.

특히 결의문 채택과 108호법단 결성을 통해 불교수호대법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불교수호와 홍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호법단에 참여한 김진희(부산 대각사 청년회) 불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마음을 모을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을 맞아 죽어도 전법하겠다고 했던 부루나 존자의 각오로 호법단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순임 보살도 “말로만 듣다가 동영상을 보고 흥분을 누를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불자들이 더욱 정진하고 지혜를 길러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정여 스님 등이 ‘자비의통일신발’을 북측에 보내고 있다.

신발 1만2400족 北으로

24일 참여불교운동본부 자비통일신발 선적

(사)참여불교운동본부(이사장 정여)는 1월 24일 여여선원 앞에서 자비의 통일신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에는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정여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지현 스님,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운영위원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참여불교운동본부는 2004년 9월 25일부터 8차에 걸쳐 1000족씩 8000족을 전달해 왔으며 2005년 11월 1일 통일부에 사단법인 등록허가를 받았다. 또한 2005년 11월 30일 영남지역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돼 2006년 2월 조선불교도연맹측과 3만족의 어린이 통일신발을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선적된 1만2400족의 신발은 2006년 12월 29일 이사장 취임식을 겸해 열린 신발지원 후원회를 비롯 불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 천미희 기자

기도 공덕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 되길

포항불교사암연합회 1080정진대법회 봉행


올바른 수행과 진정한 봉사의 실천을 다짐하는 1500여 포항 불자들의 신심으로 포항실내체육관이 후끈 달아올랐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문)가 1월 20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밝은 세상을’ 이라는 주제로 제2회 1080정진대법회를 봉행한 것. (사진)

1080정진대법회는 지난 2004년에 전국 3만여 불자들이 前 포항시장의 종교편향정책에 반발하면서 종교의 공존과 평화정착을 기원하기 위해 벌였던 범불교도대회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식전공연 날뫼북춤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철저한 기도수행중심의 법회답게 108참회문을 통한 108배의 수행정진을 반복하며 540배의 절을 하고, 사이사이 참선수행체험과 지역발전서원, 찬불가 강습, 천태종 황해사 용암 스님의 법문 등의 시간을 가지며 6시간동안 진행됐다. 나머지 540배의 절은 성도절인 26일까지 각자의 집에서 함으로써 정진의 고삐를 일상에서도 늦추지 않도록 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종문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 성도절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밝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를 기원하는 제2회 1080정진대법회의 기도공덕이 52만 포항시민의 안녕과 지역경제 회생의 가피로 회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박승호 포항 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축하 영상메시지에 이어 올해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축하영상메시지가 전달됐다. 배지선 객원기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실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경주시로부터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45인승 버스를 지원받아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운송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경주시장애인복지관은 1월 23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백상승 경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청 주차장에서 버스전달식을 가졌다(사진).

경주시장애인복지관 종광 스님은 “그동안 교통편이 여의치 못해 사회활동이 미비한 장애인들과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체육관이 오는 3월이면 완공될 예정이어서 경주시 1만 4000여 장애인들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지선 객원기자

숙우회, 신년 행다 발표회


차를 우리고 마시는 행다에 우주가 내려앉았다. 소용돌이치는 바다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흐름이 행다법에 녹아 무대위에 올려졌다.

1월 18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나선과 만다라’를 주제로 열린 숙우회(회장 강수길)의 신년 행다 발표회가 차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사진).

숙우회 신년 행다 발표회에서 선보인 행다는 만다라(曼陀羅)차, 은하(銀河) 말차, 해선(海漩) 잎차, 선풍(旋風) 말차, 은하 잎차, 해선 말차, 선풍 잎차, 만다라 말차 등. 특히 이날 선보인 숙우회의 만다라 행다는 차를 마시는 행위와 선(禪)이 어우러져 2시간이상이 걸리는 다법이다. 만다라행다는 정토에 다다르기 위해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의식과 동일시되는 만다라를 상징하며 촛불과 어가수, 바르는 향인 도향, 태우는 향인 소향, 다식과 차를 허공에 공양올린 다음 선에 들어간다.

차를 통해 수행하며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행다속에 구현해내며 독창적이고 미학적인 행다를 선보여온 숙우회는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회를 이끌고 있는 강수길 회장의 지도로 숙우회만의 색깔이 살아있는 행다를 선보이고 있다. 강수길 회장은 경봉 · 명정 · 일장 스님 등에게 불교 가르침을 배워 발우공양 의식을 30여 가지의 행다로 창작하는 등 깊은 불교적 가르침이 녹아 있는 행다로 차인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011-863-6034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탈 종 공 고

연화사 성월
관음사 청일
백년사 청호
만덕사 용선
약수암 의룡
옥수사 해운 승도
용덕사 법관
월명암 성호
천명사 성인
칠곡사 혜선
묘관사 호연
보림정사 성원
보안사 무봉
청국사 지겸 동원
묘관사 연담
부석사 혜가 혜인 동욱 혜윤
봉정사 일운
원불사 선경
태울정사 해담
천수암 자비심
천암사 연주행
계룡암 보리심
관음사 혜안
우정암 일수행
서운사 성각
영불사 법계화
향산사 자운행
향천사 혜련
관음암 수일
약수암 월화심 혜월성

◆대표자 : 연화사 성월(이남근)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370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사단법인 한국불교삼론종

창종발기인 공고

◆ 상임고문
부석사 석봉 백년사 청호 관음사 청일

◆ 원로위원
불광사 정봉 봉정사 일운 약수암 의룡
월명암 성호 묘관사 연담 천명사 성인

◆ 추진위원
연화사 성월 묘관사 호연 보림정사 성원 보안사 무봉
청국사 혜욱 용덕사 법관 칠곡사 혜선 정토사 고산

◆ 재무위원
청국사 혜욱 동현

◆ 발기위원
고당사 응진 맹천사 경공 보문암 지호
호산정사 혜관 상봉사 혜원 구룡사 혜암
영점사 향진 해인 상근 초의

"여수 엑스포·영암 F1 대회 유치기원"

조계종 전남4대교구본사, 신년하례법회에 2천여불자 참석



전남지역 5개 본사 신년기원법회가 1월 8일 전남도청 김대중홀에서 봉행됐다.

전남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광주를 떠나 지역불자 2000여명이 만나기는 처음이다.

대흥사, 송광사, 백양사, 화엄사 등 전남지역 4개 본사가 1월 8일 무안에 자리한 전남도청 김대중홀에서 '미래의 희망! 전남 건설을 위한 신년기원법회'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을 비롯해 몽산(대흥사), 영조(송광사), 종삼(화엄사) 스님 등 4대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지각 스님 등 각 사암 스님, 박준영 전남지사, 김종철 전남도의장 등 지역기관장, 각 신행단체장, 불자가 참석했다.

도립국악단의 민속공연에 이은 법회에서 4교구본사주지회의 회장 몽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자로서 제역할을 다할 때 지역도 함께 발전한다"며 "사부대중이 하나되어 새로운 전남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자"고 말했다.

이어 박준영 도지사도 새해인사에서 "불교와 전남도민은 역사적 고비마다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다"며 "불자들이 앞장서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지사는 "2010년 영암F1 월드챔피언십 코리아대회와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성공을 위해 불교계가 함께 나서줄 것"을 기원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경전을 봉독하며 "새해에도 전남도와 불자들의 기원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축원했다.

법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도청 식당에서 오찬을 나누며 새해인사를 나눴다.

이준엽 기자

부처님 되신 날…자비실천의 날

광주불교사암련, 성도재일 법회서 나눔행사 펼쳐


광주사암련은 1월 23일 3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성도재일을 맞아 나눔행사를 열었다.

빛고을 광주지역 사암과 불자들이 '부처님 되신 날'을 맞아 대대적인 자비행을 펼쳤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각)는 1월 23일 KT 정보센터 대강당에서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갖고 장학금과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이날 광주불교 사암연 산하 12개 사암은 36명의 학생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또한 산하 단체와 사암에서 후원한 쌀 200여포를 5개 구청, 교도소,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17대 회장 취임식을 겸한 이날 법회에 앞서 신임회장 지각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곧 부처님 마음이다"며 "부처님 되신 뜻을 놓치지 않는 사암연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 시장도 인사말에서 "오늘은 부처님이 인간의 생로병사를 떨쳐버리고 중생 곁으로 다가온 성도재일이다"며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불자들의 동참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초청법사로 법단에 오른 자광 스님(김용사 회주)은 법어에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참뜻을 놓치지 않는 불자가 되어 열심히 정진하자"고 설했다.

한편 사단법인 출범을 기념한 이날 법회에는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을 비롯, 지역 각 사암 스님과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장과 각 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 불자, 시민 1500여명이 동참했다.

이준엽 기자

"힘 모아 종단발전 이룹시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당부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운산)은 1월 22일 태고총림 선암사 대웅전에서 '2007년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혜초 스님 하례를 겸한 이날 법회에는 사정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부원장, 종단 주요간부 및 지방종무원장,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혜초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오계 가운데 불망어(不妄語)가 있다"고 상기시키며 "총무원장을 비롯한 삼원장은 시무식에서 밝힌 신년계획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한 태고종도들을 향해 "지난해에는 선암사사태로 종단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지적하고 "총무원과 태고총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며 종도화합을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송광사 '성보 바로알기' 주제로 템플스테이 준비

사찰에 소장된 성보문화재를 통해 '불교 바로보기'가 시도된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2월 10~11일, 24~25일 두차례에 걸쳐 '송광사 소장 성보물 바로알기 산사체험'을 개최한다.

이번 '성보물 산사체험'은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의 지도로 송광사에 남아있는 유물과 박물관 소장물을 중심으로 16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주지 영조 스님은 "송광사는 전각, 유물, 스님이 많다고 하여 삼다사찰로 알려져 있다"며 "성보문화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옛 선사들의 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 이번 산사체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61) 755-0107~9 이준엽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청소년 도보투어 실시

평창 월정사 문수청소년회(총재 정념·월정사 주지)는 강릉장애인복지관과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을 위한 장애·비장애 청소년 도보투어'를 실시한다.

도보투어는 청소년 20명이 2007년 2월 6~9일 평창군청에서 강릉시청까지 약 100km 거리를 걷는 것으로 진행된다. (033)335-1318,9 남동우 기자

생활 속 불교문화

화순 자치샘

사람이 모여 사는 부락의 근본은 우물이다.

무등산 남쪽 자락에 자리한 화순읍의 중심도 물이 나는 곳이다. 화순 군청과 남산 사이에 자리한 자치샘이 그곳이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읍내 주민치고 자치샘 물을 마시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른 새벽이면 집집마다 아낙들이 떠온 정화수였고 이 물로 밥을 했다. 아이들이 깰 무렵부터는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했다. 낮과 밤에는 샘가에 있는 당산나무 아래에 삼삼오오 모여 세상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곤 했다. 그래서 화순 5일장도 자치샘 인근 공터에서 열렸다.


화순군청과 남산사이에 자리한 자치샘.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한 자치샘은 철분과 염분이 없어 화순의 명물인 두부와 기정떡을 낳게 했다. 자치샘물로 옷을 빨면 유난히 깨끗하고, 술을 빚으면 맛이 일품이었다.

화순의 생명수 자치샘은 물맛만큼이나 이름 또한 유명하다.

자치샘물을 먹고 자란 춘곡(春谷) 강동원(姜東元. 광주 남도한약방 원장) 선생은 "화순에는 열 개의 샘이 있는데 그중에 으뜸이 자치샘으로 진각국사의 자취가 남아있어 '자취샘'으로 불렸으나 후대에 와전돼 '자치샘'이라 불린다"고 소개한다.

강 원장이 말하는 화순십정은 한천(寒泉), 성내천(城內泉), 동천(洞泉), 매화천, 덕촌천, 광덕천, 죽림천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네 샘 두 곳이다.

자치샘에 담겨있는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諶.1178~1234)의 자취는 이러하다.

고려 명종시절, 화순의 말단 향리 배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 16살된 배씨의 어린 딸이 새벽마다 샘에서 정화수를 떠다가 아버지의 석방을 기원했다.

그해 겨울, 샘물에 떠있는 물외를 먹고 아이를 낳았다. 처녀가 나은 아이여서 마을밖에 두었는데 학이 날아와 날개를 펴고 보살폈다. 주민들이 범상치 않은 일이라 하여 관가에 알렸고, 아이의 엄마인 배씨 딸이 현감에게 불려갔다. 배씨의 딸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현감은 배씨를 풀어주었다.

물외가 떠있던 샘이 오늘의 자치샘이고, 학이 살린 아이가 훗날 보조국사 지눌에 이어 송광사 2대주지를 지낸 진각국사이다. 갓난아이를 학들이 보호한 곳은 학서도(鶴棲島)로 그곳에는 학서정이 세워졌고, 학서도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진각국사 모습을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벽라리 민불'이 있다.

또한 화순 남산에는 최근에 이러한 내력이 담긴 진각국사 유적비가 세워졌다. 배씨 처녀의 정성에 따라 훗날 화순민들은 자치샘에서 길어온 정화수로 가정의 편안과 안녕을 기원했다. 화순민의 식수원 역할을 상수도에 넘겨준 뒤에도 주민들은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자치샘에서 정화수를 받아와 기도하고 음식을 장만했다.

그러나 근래들어 급속한 도시화에 밀려 자치샘도 겨우 흔적만 유지하고 있다. 샘가에 비스듬히 누운 당산나무와 물이 흐르던 도랑, 빨래터가 사라진 지 오래고, 지난해에는 커다란 도로마저 생겼다.

자치샘 사거리에서 자전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섭(69) 씨는 "예전의 자치샘을 다시 살려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두 진각국사가 탄생한 생명의 원천 자치샘에서 떠온 정화수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준엽 기자

진각국사 탄생 '생명의 원천'

도시화에 밀려 자취만, 복원해 정신 살려야



일주문



민주평통 의장표창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6년도 의장표창 수상자로 선정돼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동 타워호텔에서 표창을 받았다.



인드라망 정기총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2월 3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2007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02)576-1886



역사캠프 개최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2월 3~9일 나눔의집 부설 일본군위원부역사관이 주최하는 역사캠프 '피스로드(Peace Road) 2007'을 개최한다. (031)768-0064



설 맞아 차례특강법회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은 2월 6일 저녁 6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열린선원에서 설날을 맞아 '차례특강법회'를 개최한다.(02)386-4755



승가대 졸업식 및 전강식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은 2월 2일 오전 10시 운문사 만세루에서 제43회 운문승가대학 · 대학원 졸업식 및 전강식을 개최한다.(054)372-8800



재가연대 4기 상임대표 이취임식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는 2월 8일 오후 5시 송현클럽에서 제4기 상임대표 이취임 및 NGO 혁신모델 비전선포식을 연다.(02)2278-3417



한국명예교수회장 재선

한성대 연정열 명예교수는 1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07 한국명예교수회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회장에 재선됐다.



연수회 및 정기총회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은 2월 3~4일 파라다이스호텔 도고에서 '제28회 차생활예절지도사범 동계연수회' 및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02)701-0475

언론인 박찬 시인 타계



간암 판정을 받고 한달여 간 투병해온 시인 박찬씨(본지 논설위원 · 사진)가 1월 19일 오후 5시 향년 59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 1983년 월간 시문학에서 '상리마을에 내리는 안개는'이라는 시로 등단했다. 서울신문 기자와 논설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한국문학평화포럼 부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인재양성은 불교의 미래"

불교환경인재불사기금 3천만원 기탁

수경 스님



"앞으로 할 일은 많은데 불교계 내 인재가 부족합니다.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불교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 운동,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운동, 새만금 살리기 3보 1배 등 환경운동의 최일선에 섰던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사진). 스님은 지난 해 5월 서울 화계사 주지로 취임한 후 '인재불사'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수경 스님은 1월 19일 불교환경연대에 불교환경 인재불사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불교환경 인재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500만원의 '2006 불교환경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화계사 회주 설정 스님 추대식에서 불교인재개발원에 3000만원을 전달하며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불교환경연대측은 올해부터 1억 원의 인재불사기금을 조성해, 장학생을 대폭 늘려 불교계 인재불사의 지평을 열어나갈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 중심에서 불교계 환경운동가, 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경 스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해야 불교계 안팎으로 펼치고 있는 수많은 활동에 든든한 외호세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환경복지 불교계가 주도해야"

'불교복지 영역 확대론' 주장

지현 스님



"불교복지도 환경문제나 범죄자 가족 복지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 · 사진)이 1월 18일 대구불교방송 문화센터에서 열린 '불교리더를 위한 초청강연'에 참석해 불교복지의 영역 확대 및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스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만큼, 환경과 복지를 접목한 '환경복지'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리를 가진 불교계에서 꼭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죄자 가족복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흔히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은 동정하지만, 범죄자의 가족들이 또 다른 피해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족 한 사람의 잘못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는 뜻에서 범죄자 가족에 대한 복지를 제안합니다."

지현 스님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쯤 관련 세미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불교사회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약분야인 여성,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에 대해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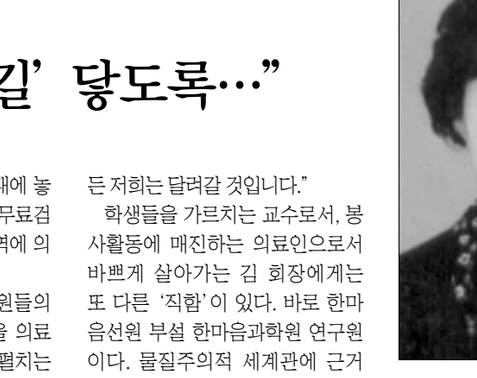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대충 대종사 제82회 탄신법요식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지낸 대충 대종사 탄신 제82회 봉축법요식이 1월 23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 4층 삼강전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前 총무원장 운덕 스님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대충대종사님의 유지를 이어 대중불교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강북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기념식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이사장 혜자)은 1월 23일 강북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강북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혜명복지원 이사장 혜자 스님, 김준기 강북청소년수련관장, 김현풍 강북구청장, 김기성 서울시의회부의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불교시민단체 신년모임



불교시민단체는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모임을 열었다. 단체들은 2007년 조계종 종무기조 및 핵심사업과 사회부 사회팀 사업계획 및 현안을 공유하고, 불교시민단체들의 사업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모임에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8개 단체가 참석했다.

2007년을 뛰는 불자 — 김주현 – 선재마을의료회 회장

"의료소외지역 구석구석 '자비의 손길' 닿도록…"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선재마을 의료회. 2005년 첫 여성회장으로 당선돼 지난 2년간 선재마을 의료회를 이끌어 온 김주현(53 · 강원대 간호학과 교수 · 사진) 회장에게 올해는 남다르게 기억될 것이다.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회원'으로 돌아가는 해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주민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더 많은 의료봉사를 펼치고자 했던 계획을 실천으로 다 옮기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간 사찰을 중심으로 펼쳐왔던 의료봉사를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으로 확대하고 싶었지만, 재정 · 인력상의 어려움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난다.

하지만 2년 동안 선재마을 의료회의 활동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간 꾸준히 진행해 온 서울 봉은사, 부천 석왕사 무료진료와 서울역 노숙자 진료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능인선원에서도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무료검진도 시작했고, 평창 수해지역에 의료봉사를 나가기도 했다.

'의료'라는 전문성에 회원들의 '성실함'이 더해져, 선재마을 의료회는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지난 연말에는 그간의 활동을 인정 받아 서울 봉은사로부터 공로패도 받았다.

"2월 총회를 통해 회장은 바뀌겠지만, 일회성 봉사가 아닌 지속적인 봉사를 펼쳐나간다는 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단이나 개별 사찰에서 의료봉사를 요청하시면 언제든 저희는 달려갈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의료인으로서 바쁘게 살아가는 김 회장에게는 또 다른 '직함'이 있다. 바로 한마음선원 부설 한마음과학원 연구원이다.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한 치유모델을 대신한 새로운 치유모델을 찾는 것이 김 회장의 '화두'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결국 마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한마음과학원에서는 수행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병의 치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으로써 병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약사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껴안는 김 회장. 의술을 통한 자비행과 봉사로써 다져가는 수행의 마음이 김 회장의 2007년을 빛내줄 힘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여수령 기자

보우승가대학 (2007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지금! 사찰발전에 필요한 실제적 이론과 의식을 최우선으로 배울 학인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1주일에 2일만 할애하면 교수님들의 열의와 교육제도로 실력을 완성해 드립니다.

1.입 학 안 내

① 모집학과 및 정원 ● 불교학과 : 30명 ● 범패학과 : 30명 ● 불교문화예술학과 : 30명

② 응시자격
- 신입생 : 불교적 소양과 도타운 신심을 가진 성인
- 편입생 : 지원학과에 걸맞는 실력을 갖춘 이

③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④ 원서교부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02)763-5213
- 기 간 : 2007년 1월 15일 ~ 2월 26일

⑤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통
2. 주민등록 초본 ····· 1통
3. 반명함판 사진 (3cm×4cm) ····· 3매
4. 종단추천경우 : 종단 대표자 추천서 ····· 1통

2. 면 접 일 시 ● 2007년 2월 27일 오후 2시

3.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게시판

4.교 과 목

불교학과	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철학개론(동양, 서양), 비교종교학, 초발심자경문, 교리발달사, 사미율의(기초의식), 원전강독(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구사유식, 계율론, 대승사상, 밀교개론, 사원경영(종무행정, 상담), 선학개론, 포교학, 불교와 사회복지
범패학과	상주권공(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관음 시식, 화청), 작법무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불교의식 이론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계율론, 선학개론, 교리발달사, 포교학
불교문화예술학과	재설비 (도량장엄, 불단장엄, 고임새, 지화), 전통수가사, 서예(기초,장엄서예) 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계율론, 선학개론, 교리발달사, 포교학
특 강	◆생활역학 : 명리학 이론과 실전, 길흉방위, 풍수지리,작명,택일, 궁합. ◆호 적 : 천수가락, 염불가락, 요잡가락, 능게가락, 취타가락

5.교 수 진 신규탁(연세대교수),김영진(동국대교수),김치온(동국대교수),문무왕(동국대교수), 이효원(한국종교문화연구원),일휴스님(경산강원 강주), 지홍스님(승가대이사장), 금담스님(승가대부학장), 능해스님(승가대교수),경허스님(승가대교수), 대각스님(승가대교수),대혜스님(승가대교수),백영혁(승가대교수)외 교내외석학

6.문 의 (02)763-5213. www.boweosamgha.com

보 우 승 가 대 학 학 장

– 조계종 포교전진대회 현장 –

수행으로 시작 나눔으로 회향

포교·신행단체 대표 및 임원진 250여 명 참석




한 참석자가 서원지를 작성하고 있다.


경건하게 진행된 촛불의식.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사진 왼쪽)이 나눔의 모금함을 통도사 자비원 사무처장 삼해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언제나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 포교의 밝은 날이 가까이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온 국토와 전 세계가 부처님 나라가 돼 헐벗고 굶주림 없이, 전쟁으로 공포에 떠는 일 없이,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항상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도움받기 보다 도움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1월 20일 양산 통도사 설법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박성언 간사가 서원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박 간사를 중심으로 ㄷ자 형태로 둘러앉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인 촛불을 응시한 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둑해진 사위로 촛불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권중서 서울 · 경기포교사단 사찰문화해설 1팀장은 자신이 포교활동을 하는 수원 용주사 일대에 효행테마 공원이 조성되도록 발원했다.

"제가 포교하고 있는 용주사는 전국 제일의 효 본찰이지만 이제 그 일대가 개발의 몸부림에 직면했습니다. 그 개발을 멈추게 해 주소서. 용주사 융 · 건능 사이의 30만평을 세계 제1의 효행테마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처님을 받드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서원합니다."

사연은 조금씩 달랐지만 참석자들의 소망은 한결같았다. 새해에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불자가 되겠다는 귀의와 스스로 주위를 밝히고자 하는 발원이 그것이다.

가족 · 이웃에 먼저 모범 보이세요

불기 2551년 조계종 포교원의 종책을 공유하고 각 단체별 사업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포교전진대회가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통도사에서 열렸다.

20일 열린 입재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지은 스님, 10개 교구본사 포교국장,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양성홍 포교사단장과 각 포교 · 신행단체 대표 및 임원진 250여 명이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입재식에서 "수행을 해야 내가 행복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이번 포교전진대회를 통해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할 때 가족과 이웃들이 불교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나눔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수행과 나눔에 대한 기치는 현대사회 복지와 종교 문화에 꼭 필요한 지침"이라며 "한국사회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향과 내용들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포교부장 동범 스님은 포교종책발표에서 "올해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어린이 포교를 중점 과제로 삼는 포교원의 제반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포교컨설팅 2차년도 사업 및 수도권 포교현황조사를 중심으로 총 9개 분야 사업 △간화선 지도인력 양성 및 사이버 불교대학 운영을 중심으로 총 10개 분야 사업 △어린이 포교 관련 제도개선 및 사찰 어린이 법회 개설을 중심으로 총 14개 분야 사업 △계층별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실질적 신도확보를 위한 포교종책 개발을 중심으로 6개 분야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입재식에서 병원불자회와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뛰어난 포교활동을 한 공로로 포교단체포상을 받았다.

수행 · 나눔 특강 열고 보시금 전달

21일 오전 7시 통도사 부도탑 앞. 칠흑 같은 어둠을 깨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지런히 줄을 맞춘 그들은 죽비소리에 맞춰 3보1배를 하기 시작했다.



포교원 포교국장 오심 스님을 선두로 1보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2보에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며, 3보에 스님들께 귀의했다. 또 1보에 탐심(貪心)을 멸하고, 2보에 진심(塵心)을 멸하며, 3보에 치심(恥心)을 멸했다.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기운이 다가왔다. 사람들이 내뿜는 더운 입김이 경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나지막이 '관세음보살'을 찾는 이도 있었다.

금강계단에 도착한 이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흐르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환희심으로 넘쳐났다.

'수행으로 입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자'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포교전진대회에서 수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통도사 전계대화상 혜남 스님의 '수행에 대한 특강'이 열렸으며, 108배와 3보1배가 진행됐다.

나눔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의 '나눔에 대한 특강'이 열렸으며, 포교전진대회를 통해 모아진 보시금을 통도사 자비원에 전달했다.

자비원 사무처장 삼해 스님은 "자비로운 손길로 모은 보시금으로 이 세상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보교류의 場으로 거듭나야

이번 포교전진대회는 예년과 달리 호텔이나 유스호스텔이 아닌 사찰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숙식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뒤따랐다. 하지만 입재식 후 100여명 이상이 자리를 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범 스님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진행상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포교전진대회는 새해를 맞아 포교 · 신행단체장 및 주요 임원진들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연구과장은 "수련회처럼 딱딱하고 수동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대회 성격에 맞게 활발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단체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자리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산 통도사/글 · 사진=남동우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 × 30Cm
2 돈타레 5.6ϕ × 27Cm
5 약쑥향 1호 5.9ϕ × 20Cm
6 약쑥향 3호 4.7ϕ × 13Cm
7 약쑥향 4호 4.7ϕ × 10Cm
8 약쑥향 등초 3.1ϕ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ϕ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ϕ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ϕ × 26Cm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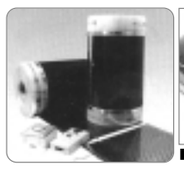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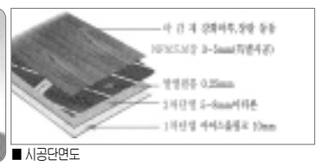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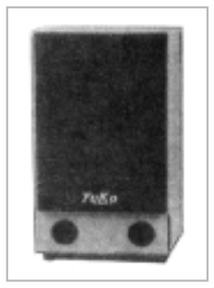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1.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혹은「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2. 동서양식 레이키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일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氣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저(박희준)는 1997년 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3. 카루나 레이키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용희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천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 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할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러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 **정가 육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농협 705-12-337974 (예금주 : 이준식)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탈종공고

- 사찰명 : 보각사
- 주 지 : 김수태(해원)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산 44-147번지

위 상기인(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2007년 1월 5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하

탈종공고

- 법 명 : 현공 (속명 진성만)
- 승적번호 : 7177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6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효경정사 • 주 지 : 효경법사(천정숙)
- 주 소 : 경북 포항시 해도동 122-1
- 사찰명 : 성덕정사 • 주 지 : 홍신(조애란)
- 주 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28
- 사찰명 : 자은암 • 주 지 : 호당(임선순)
- 사찰명 : 성도정사 • 주 지 : 보명(임정숙)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49-1
- 사찰명 : 은천사 • 주 지 : 상경(박창욱)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1동 580-1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31일

대한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법하

모든 게 법신이니 좋고 나쁜것도 없다

법정 스님 (수덕사 주지)

선지식을 찾아서 — 법정



법정 스님은 1959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3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강원을 수료했으며, 64년부터 79년까지 인천 용화사 범어사 동화사 해인사 등 제방 선방을 다니며 16안거를 성만했다.
89년 수덕사 말사 영봉암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수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무엇이든 기다려 주는 넉넉함. 하지만 수행에는 분초를 다툰다. 세상만물이 스승이고 공부라는 법정 스님. 스님이 선지종찰(禪之宗刹) 수덕사의 주지인 이유는 그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넉넉했다. 절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도, 대웅전도, 전각들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모습도 그랬다. 겨울을 품은 수덕사의 한가로운 자태는 그대로가 자연이다. 집을 보면 사람을 안다고 했다. 그대로가 자연인 수덕사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

삼배를 올리자, 법정 스님도 삼배의 예로 기자를 맞았다. 스님으로부터 삼배의 예를 받아본 것은 두 번째였다. 3년 전에 법정 스님을 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스님은 기자를 삼배의 예로 맞아주셨다. 교구본사 주지라는 권위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스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탈했던 법정 스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보여드릴 것이 없는데, 손님을 맞았습니다. 차 한 잔으로 만족하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아예 먼저 낮추시니 말문이 막혔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사람을 편안하게도 하지만 그만큼 긴장하게도 한다.

> 인연은 자신이 만드는 것
>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이고
> 하는 일이 모두 공부이니…

"스님을 두 번째 뵙지만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때는 스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렇지요. 세상 만물 인연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연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만남쯤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인연은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스승이고, 하는 일마다 모두가 공부입니다. 하지만 스승으로 삼지 못하고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스승도 공부도 없는 법입니다. 인연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하니 어찌 인연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정 스님은 '사람과 공부' 두 가지 인연을 말씀하셨다. 평소에도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신다는 스님의 인연론에 귀를 기울였다.

"경허 선사께서 이르시기를 '일 마친 사람의 분상에 때로는 부처와 중생과 건곤과 대지를 부수어 하나의 작은 티끌을 삼으며, 때로는 제자리에 머무르며 때로는 그 자리를 바꾸어서 일체가 자재한다' 고 하셨습니다. 일 마친 사람의 분상이란 아마도 어른들을 명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앞선 시대를 산 어른들의 가르침은 귀감이 됩니다. 하물며 스승의 가르침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15세에 현재 수덕사 방장이신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서 인천 용화사에서 전강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효봉, 탄성, 송담, 활안 스님 등 불자들이 다 아실만한 스님들도 모시고 공부했지요. 그분들의 말씀 한 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는 그대로가 가르침이었습니다. 전강 스님은 무섭게 정진시키셨지요. 하루 3시간 자며 정진했으니까요. 물론 기억하기 싫은 인연도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도 스승은 있고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오랜 세월동안 선 수행에 몰두해 온 수좌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스님의 성정 탓이다. 스님은 말 수가 극히 적다. 묻지 않으면 먼저 말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법이 없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늘 기다려준다.

"좋고 나쁜 것은 없지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님 법신이요,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부처님 법음인데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경받지 못할 것이 없으니, 이런 마음이 바로 대자비심입니다. 대자비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깨달음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속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다 속 물고기가 밖의 세상을 모르듯이 우리도 다른 세상을 모릅니다. 염불하고 참회하고 참선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이르겠습니까."

교구본사 주지소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법정 스님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켜가고 있다. 조석예불은 빠짐없이 참석하고, 종무를 살피는 시간에도 화두를 든다.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공양을 하다가,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도 의심이 나거나 공부가 잘된다 싶으면 정진을 한다.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였을까. 출가해 한창 공부에 몰두하던 시절을 말씀하셨다. '무(無)' 자 화두를 타서 공부를 하다가 '시심마' 로 바꿔서 용맹정진을 하는데, 어느 날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과거 지나온 과정이 보이면서 무슨 공안인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게 되었고, 어떤 질문이 든지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다는 느낌이 확연해졌다. 그런데 그 뒤 3일이 지나자 화두조차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흐려졌다. 환해졌던 당시 스승에게 점검받지 않은 것을 참으로 후회했다며 법정 스님은 빙그레 웃는다.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청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순간순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발짝 잘못 뛰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눈 감으면 죽고, 눈 뜨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이고 현실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요. 오가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니, 내가 하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해와 같고 번뇌는 구름과 같습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구름과 같아서 본마음을 가리지만 본마음은 변할 줄 모르니 그 마음으로 돌아가 참회하고 모든 것을 쉬어야 합니다. "

법정 스님이 종무일을 보는 책상 유리 아래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끼워져 있다. 거기에는 '주지 신조' 라는 문구 아래 '인내로서 불행(佛行)을 삼고, 노력으로 정진(精進)을 삼고, 평상심(平常心)으로 도(道)를 삼자' 는 다짐이 적혀 있다.

'선지종찰(禪之宗刹)' 수덕사.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으로 이어져 온 근세 선불교의 고향인 수덕사의 선풍이 아직도 면면히 살아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풍을 잇기 위해 묵묵히 화두를 들고 있는 법정 스님과 같은 스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덕사/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수/행/의/현/장 — 유마선원 공부방 제1기 수행교실

오계 지키며 꾸준히 정진해야 '밝은 삶' 가능

30여명의 불자들이 자그마한 공부방에 가득 모여 앉았다. 수행에 대한 열기로 공부방은 뜨거웠다. 1월 23일 오전 11시 예불을 마친 참가자들은 붓다락키타 스님(보리수선원)의 지도 하에 '근본불교의 수행체계와 방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서산에 있는 유마선원은 서울 · 경기지역 불자들을 위해 종로에 공부방을 열었다. 제1기 수행교실은 1월 16일 시작돼 3개월 과정으로 수행법을 공부하게 된다. 둘째 달은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이 '간화선의 원리와 수행법'을, 셋째 달은 이제열 법사가 '대승불교의 수행체계와 공관법'을 지도한다.



1월 23일 종로 유마선원 공부방은 붓다락키타 스님의 지도로 '좌선'에 흠뻑 빠져들었다.

붓다락키타 스님의 좌선 포인트

- 앉을 때 자신만의 자세 찾아라
- 손바닥은 무릎을 감싸지 않게
- 눈을 감고 6문을 최대한 차단
-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 잊지 말것
- 좌선과 경행 반반씩 병행해야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붓다락키타 스님이 질문하자 여기저기서 대답이 분분하다. 스님은 "대부분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가슴에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다만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아 찰나에 입태되고 그때 업력이 가고 심장 부위가 먼저 생기고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서울 뿐 아니라 덕소 안양 평택 등 경기도 일대에서 몰려든 수행자들은 붓다락키타 스님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했다.

붓다락키타 스님이 먼저 강조한 것은 부처님 말씀의 근본을 지키라는 것. 이 자리에서 수행을 배워간다는 생각보다는 살아가면서 오계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우선시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근본이지만 1년 내내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단 하루라도 기간을 정해서 오계를 지키는 것을 생활화하라는 것이 스님의 지적이다. 한국불자들은 너무도 쉽게 오계를 안 지킨다는 스님은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수행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실수 시간. 모두들 스님의 설명에 따라 자세를 바로잡는다.

스님은 좌선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한다. 결가부좌가 된다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을 자신만의 자세를 찾으라는 것. 다리의 자세를 갖추면 상체는 골반위에 가볍게 얹혀있는 느낌으로 앉아야한다. 상체에 힘이 가지 않도록 어깨를 옷걸이 삼아 편안하게 앉으라고 스님은 지도한다.

"수인은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되 손바닥이 무릎을 감싸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무릎을 감싸 손에서 열이 나면 정신집중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고 편안하게 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좌선을 할 때 꼭 눈을 감으라고 지적한다. 세상과 소통하는 6문을 모두 최대한 차단한 채 수행에 들어가 정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삼매와 혼침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 수행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눈을 감고 좌선을 해도 무방하다고 스님은 말한다.

혀의 위치 등을 묻는 참가자들에게 스님은 집중력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혀의 위치 눈 · 손의 자세 등에 끄달리다가 정작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수행에 진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붓다락키타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좌선에 들어간 참가자들. 스님은 중간 중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지 말라"고 던져준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는 그 순간 혼침에 빠지고, 제대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님은 좌선과 경행을 반반 균형을 맞춰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좌선은 집중력을 키우는 좋은 자세이고, 경행은 정진력을 키워주는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좌선과 경행을 반반씩 번갈아가면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이 알려주는 경행법은 걸어다니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발이 바닥에 닿았다는 감각만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몸이 걷는다는 것을 느끼고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붓다락키타 스님은 이와 함께 자애관 수행을 항상 하라고 가르쳤다. 자애관 수행은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자신이 원하는 동시에 모든 이들이 원하는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자애관 수행을 하게 되면 수직적인 사고가 사라지고 수평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자애관 수행의 기본이다.

또한 자애관 수행에는 성냄이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보면 탐욕 · 어리석음 등 탐 · 진 · 치 삼독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붓다락키타 스님은 "불자들만이 있는 곳에서 부처님 말씀임을 계속 강조하며 수행법을 가르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며 "고통 괴로움 적대감에서 벗어나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12시 30분에 마치기로 했던 수업은 계속되는 질문으로 1시까지 이어져 참가자들의 목마름을 느끼게 해줬다.

두 번째 수업을 마치고 이제열 유마선원장은 "팔정도 삼법인 사성제 등은 스스로 공부해 와야 스님의 지도를 따라갈 수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근본교리는 익숙하게 알아두는 것이 불자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02)737-8227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③

가야산 백련암

장인성 시인

이능아,
티끌 같은 몸뚱이를
산에 담는다고 산이 되겠느냐
물에 담는다고 물이 되겠느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
몸뚱이는 몸뚱이 속에나 담아두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성철선사님?

※백련암(白蓮庵): 성철 스님이 말년에 수행하다 입적하신 암자로 해인사 경내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이상배 화백

대효 스님 참선강좌 서울서 열린다

불이선원 2 · 4주 화요일

제주 원명선원의 참선수행법회에 참여하고 싶었던 수도권지역 불자들은 서울 학동 불이선원을 찾아보자.

대효 스님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저녁 7시에 참선수행을 지도한다. "참선은 인간 근원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수행"이라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제주 원명선원은 30여 년 동안 매주 일요일 참선대학, 매주 월요일 참선수행 모임인 '선불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명선원에서 지도하는 수행법은 간화선이다. 대효 스님은 문답식 법문으로 유명하다. (02)543-2007

도선불교 실달학원 13기 모집

도선사에서 운영하는 도선불교 실달학원이 2월 말까지 제13기 기본교육생을 모집한다.

도선불교 실달학원에서는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직접 부처님 일대기, 기본교리 등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강의한다. 또한 다도 수련회, 수계식 등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3월초 개강할 예정이다. (02)993-3161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전 일주향 올리며 (하)

김남식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처님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처자식을 두고 출가해서 고행 끝에 우주만유의 참된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죠. 아흔 아홉 명의 목숨을 앗은 살인마도 자비의 손길로 거두어 깨달음을 얻게 하신 세존. 이천오백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중생들의 가슴에 진리를 설하시고, 광명을 보이시고 증명하시는 부처님.

부처님을 만난 그날, 하염없이 눈물만 두 눈 가득 흘러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낮이고 밤이고 부처님 앞에 마음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저 잘못했다는 일념만으로….

하지만 세월의 무게에 안주해서일까요, 처음의 순수했던 신심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속빈 강정처럼 모양만 불자였지 생활 자체는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저의 현재가 제 과거가 빚어낸 자업자득이라는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서 찾아오는 자괴감과 죄의식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극심한 불안과 이유 없는 열등감에 휩싸인 채 손으로는 불경을 들고 입으로는 부처님을 찾으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속 일어나는 열등감을 기반으로 아집으로 똘똘 뭉친 '나'라는 또 하나의 허위의식을 키우고 있었답니다.

제가 열 여덟 살 때 친구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에 부딪치는 대형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몸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고, 함께 탔던 나의 친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꿈이기를 바라면서 울부짖던 그 날.

108배·사경으로 새 삶 찾아



그림: 문병성

지금에서야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저 자신의 오랜 잘못된 습의 결과임을, 제 어리석음에 대한 필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 받았을 내 주변을 스쳐갔던 많은 사람들, 또 지금도 마음 속 응어리를 짊어지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죄의 자성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난 것. 마음 한 번 비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도 업도 없어지고 마음 또한 공하여야 이 경계를 이름 하여 참회라 하나이다.'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머리끝이 쭈뼛 설 정도로의 전율이 왔습니다. <천수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문제의 발단은 눈앞의 모든 대상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참회를 할 수 있을까? 진리의 테두리 밖에서만 맴도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 연속의 날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오로지 한마음만을 참회의 길을 가기로 서원하며 이곳 부산교도소 불교방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좀더 체계적인 불교공부와 신행생활을 위해 매주 교리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공부 뿐만 아니라 법당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저 자신에게 쌓여있는 잘못된 습관과 어리석은 생각이 버려졌습니다. 참된 하심의 바른 길을 배우고 있는 것이겠지요.

고마우신 불법의 인연으로 이곳 교도소에서 교화 봉사 활동을 해주시는 많은 스님과 포교사님들, 그리고 보살님 거사님들의 자리이타행과 끝이 없는 자비행을 보면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좁은 우물 안에서 헤어나지 못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답니다. 참으로 내세움도 응당한 대가도 없는 무주상보시의 참 모습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108 참회 예불에 이어 경전 사경을 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쓴 사경지를 이곳 포교원의 원장님에게 보내 드리면서 어느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며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번뇌 불안 고민 등이 소멸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모두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이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무명의 어둠 속에서 참된 진리의 빛과 광명을 밝혀주신 부처님. 이제는 나를 깨달아 올바르게 사랑하며 대자대비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순응하며 보다 나은 삶의 길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끝)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서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바로보인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인진쑥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숟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 (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과 엿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빵 · 떡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위장, 간, 어혈에 좋은 인 진 쑥 조 청 1.2kg = 58,000원

산사조청원의 명품

숯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숯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자 모집

복(福)중에서 발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출가하여 사홍서원의 원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1)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5세 이상 55세 이하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조계종 종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연락 이메일 : muryangsa@empal.com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토선원 시민선방
법당 삼존불 조성 불사 모연문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불연의 인연을 더욱 키우고자 생활속에서 함께 할 도심 속 시민선방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생의 복밭이 되며, 지친 도심 불자들의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약속할 우리의 도량입니다. 그러나 소승의 원이 부족하여 도량의 부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선방의 불사가 원만회향하기 위해서는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부디 수희 동참하셔서 업장소멸하시고 지혜복덕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정토선원 혜월 합장

불사내용
◆석가모니불 조성 ◆관세음보살님 ◆지상보살님
◆후불탱화 ◆신중탱화 ◆인등불사

● 연락처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332번지
전화 051)721-2337 / 011-594-1526
● 입금계좌 :
농협 909-12-595431 국민 958801-01-154488
(예금주 : 고낙범)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환
된장/간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맑은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대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청국장이 우리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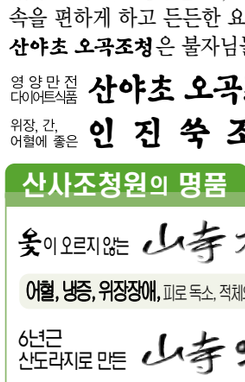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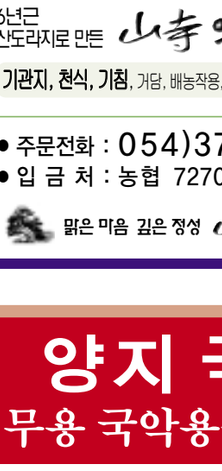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된 장 1kg 12,000원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한용 털신 최고의 선물



털 깔창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대자암 시방당 선원
가행정진 1년 결사 모집공고

1년 결사 기간
2007년 음력 4월 15일 부터
2008년 음력 3월 15일 까지

◆ 참가자격 : 비구승 및 거사
(삭발염의 방부비 없음)
◆ 모집인원 : 10명
◆ 정진방법 : 수면시간 23시~01시 까지 2시간
(수면시간 외 시간은 용맹정진과 동일함)
◆ 접수마감 : 2007년 음력 2월 15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계룡산 갑사 대자암
시방당선원 회주 영 파
전화 041)857-5880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뛰놀고 공부하며 부처님 세상 조금씩 다가가요

영천 은해사 '어린이 불교문화교실' 현장

1월 21일 일요일 아침, 영천 은해사. 천진면목 아이들의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온 절 안에 가득하다. 근교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때아닌 소풍이라도 왔을까. 아니다. 바로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은해사 '어린이불교문화교실' 때문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어린이불교문화교실은 영어로 배우는 불교교리와 다도, 한자, 축구교실 등의 반별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어린이불교문화교실은 현재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날 열린 어린이불교문화교실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은해사 어린이불교문화교실의 축구교실에서는 누구나 축구왕 '슛돌이'가 될 수 있다. 1월 21일 열린 은해사 어린이축구교실에서 김민수 군이 힘차게 드리블 하는 모습.

가장 큰 보물은 '부처님 가르침'



"여러분들은 보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이요~." "루비요." "다이아몬드요."

지도법사 일창 스님의 질문에 여기저기서 진귀한 보석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스님은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단다. "도대체 뭘까?" 서로 의아한 얼굴로 눈만 껌뻑이는 어린이들에게 일창 스님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세 가지 보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바로 삼보라 하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보물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세 가지 보물을 마음에 품은 어린이들은 이렇게 물질을 넘어선 부처님 세상에 조금씩 다가갔다.

5일째 수업 발음이 예사롭지 않다



"♪♬ come and see you"ll know. the Teaching of Peace the Teaching of Love (와보면 알아요. 평화와 사랑의 가르침) ♪♬"

영어로 배우는 불교교리 시간. 은해사 승가대학원 강당이 맑고 청량한 어린이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찼다. 어린이들이 영어노래 '에히빠씨코'의 매력에 푹 빠진 것. '에히빠씨코'는 팔리어로 '와보면 알아요'라는 뜻인데 '영원히 해탈하려는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평화와 사랑의 가르침이 있다'는 내용의 노래다.

지도법사 일창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밌게 영어도 전달하고, 불심도 심어줄 방법을 고민하며 며칠을 인터넷에서 찾은 것인데, 왁자지껄 떠들다가도 '에히빠씨코'만 나오면 순간 조용해질 만큼 인기가 높다. 이제 겨우 5일째 수업인데도 노래를 따라하는 아이들의 발음도 예사롭지 않다.

선생님 마음 담긴 차 맛 'good'



선생님과 함께하는 축구교실은 남학생들에게 인기짱이다. "헤이. 패스. 패스." "야~~. 너 오프사이드 아냐?" 40여명의 새싹 불자들은 영하 5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은해사 인근 청통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쫓아다니며 축구 경기에 푹 빠졌다. 그 시간 다도반 어린이들은 대구 원정차회 이화영 사범의 지도에 따라 다소곳이 앉아 다도를 배웠다. 난생 처음 배워보는 다도인지라 여기저기서 주전자 뚜껑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일쑤지만 아이들의 표정에는 잘 배워보겠다는 진지함이 감돈다.

다도 수업이 끝난 후 "어땠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은희(영천동부초등 3년)양은 "원래 덜렁거리는 성격인데 다도를 배우면서 침착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배우게 됐어요"라며 제법 의젓한 대답을 했다.

어린이불교문화교실에 처음 참가했다는 하지현(하양초등 3년)양은 "개학하면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올거예요"라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글 · 사진=배지선 객원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교양 문화 교실'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다. 개설강좌는 가야금, 종이공예, 클래식 기타, 탁구, 농구 등이다. (051)6055-131

근로청소년복지관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2월 12~13일 '발렌타인데이 단기특강'을 운영한다. 특강내용은 초콜릿 만들기, 선물 상자 만들기 등이다. (031)898-4944

사동디지털문화의집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좌'를 개설한다. 접수는 2월 중순까지며 선착순 20명 모집. (031)414-7999

파주 청소년 문화의집은
중 · 고 · 대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2월 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내용은 문화의 집 행사 도우미, 환경미화 활동 등이다. (031)940-8440

음성 청소년센터에서는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청소년 취미교실'을 운영한다. 분야는 리본공예와 풍선아트 등이다. (043)873-4579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까치 까치 예절 교실'을 2월 10일 진행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도, 다식 만들기, 한복 바로 입기, 절하는 법, 차례 상 차리기 등이다. 접수는 2월 5일까지며 선착순 50명 모집. (031)218-0402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전개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장이 여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방치하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캠페인 전용 지면 두개면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법회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칼럼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종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급 수는 75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 마당인 종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 · 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또 각 종립학교의 교장 · 교감 선생님과 교법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도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립 중고교생 논술 경시대회

논술이 입시의 최고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종립중고교생들의 논술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논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논술 경시대회를 개최해 종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 수험생을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문의 02-2004-8237)

■ 희망의 템플 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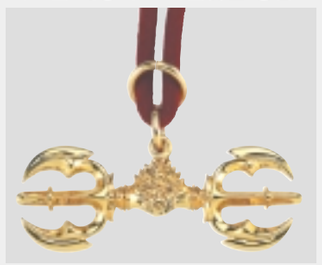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캠페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우체국 010579-02-078140 (예금주 노병철)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밸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밸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 (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밸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밸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밸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밸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밸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밸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金나노중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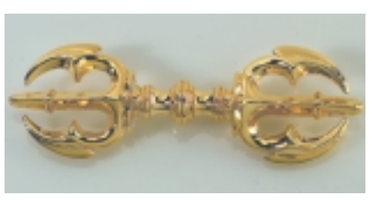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성적이 쑥쑥 오르는
10분 명상 기공

“바람의 느낌… ” 순수함의 세계 체험

3. 자연과 하나 돼 마음의 때를 씻다.

■ 이렇게 해 보세요

① 좌선의 자세를 갖춘다.(가슴을 활짝 열고, 허리(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몸의 무게 중심을 단전에 두어 몸 전체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턱은 아래로 살짝 당기며 가급적 눈은 뜨도록 노력하고, 마음자세는 새털처럼 가볍게 한다.)

② 약 3회 정도의 긴 날숨을 천천히 그리고 길게 내쉬면서 호흡을 안정시킨다.

③ 호흡이 떨어진 단전 아래에 의식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주위의 자연을 관(觀)한다.

■ 해보니 이랬어요.

* 파도소리와 나를 하나로 했을 때 파도소리가 나에게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 바람을 느꼈다. 바람이 얼굴을 살며시 스치며 지나갔다. 너무 시원했다.
* 공부하고 운동할 때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고 새소리, 바람소리 등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서 좋았다.



나를 버리고 대자연과 하나되는 실상관법. 우곡선원의 청소년 명상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해운대 백사장에서 실상관법을 체험하는 모습.

우곡선원에서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실상관법은 삼라만상 모두를 마음에 담아 나와 자연이 하나 되면서 걱정, 갈등을 녹이고 편안하고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심신 수행법이다. 다시 말해 순수 자연의 모습인 서쪽으로 저물어 가는 붉은 해, 이른 봄 따스한 햇살에 녹는 얼음 끝에 맺힌 투명한 물방울에서 반사되는 영롱한 빛,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곧게 뻗은 나무, 파도 소리, 풀 향기 가득한 대지 등 자연의 모든 움직임을 살피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이미 지나간 과거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닿아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연과 연결시켜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구체적인 체험의 세계이기도 하다.

우곡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명상(참선)교실은 부산 해운대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아름다운 동백섬에서 자연명상으로 실상관(實像觀)을 체험한다. 주로 교실이나 집 안에서만 지내는 아이들에게 탁 트인 바다의 냄새와 힘찬 파도 소리는 무디어진 모든 감각기관을 일시에 깨우는 결 고운 울림이 되어 바다를 보는 순간 아이들은 이미 바다와 하나가 된다.

명상교실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동백섬을 돌면서 누리마루를 거쳐 최치원 동상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어, 동백섬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면서 신기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동백섬 순환도로를 한 바퀴 돌아 최치원 동상 있는 곳까지 오려면 걷기에 익숙하지 않은 요즘 아이들은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자세를 갖추고 명상을 하면 자연스레 나무와 바람, 포근한 햇살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어땠니?” 하고 물어보면 마치 시인이 된 듯 “바람의 느낌”, “나뭇잎의 향기”라는 평소에는 들어보기 어려운 말을 한다. 자연명상은 개구쟁이 아이들을 금방 시인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것이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참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성인들보다 더 빨리 순수의 세계에 들어감을 자주 경험한다. 천천히 날숨으로 호흡을 내리고 실상관법으로 좌선에 드는 순간은 늘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를 주는 소중한 시간이다. 실상관법을 계속하면 지금까지 몰랐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은 물론 단순하고 명쾌한 사고방식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김혜경 선생님(우곡선원 교육지도자불자회장)

자연 느끼며 편안한 마음 경험
능동적 · 적극적인 삶 살게 돼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 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sasiman@daum.net)

겨울불교학교를 체험하고 나서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형, 누나, 동생, 친구 할것 없이 모두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찬불동요와 율동도 배우고 참선도 해 보고, 예불도 드리고 친구들과 같이 점심 공양도 즐겁게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달마, 혜가 스님, 승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혜능 스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 영향을 받아 지금은 엄마 책꽂이에 꽂혀 있던 <육조 혜능평전>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우리말 반야심경의 운율이 너무 좋아서 입에서 자꾸 콧노래로 나오네요. 우리를 위해 고생하셨던 대학생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여름에 열리는 여름불교학교도 기대되요.
(서울 옥천암 어린이법회 이재운)





수능 합격의 길라잡이

‘D-100 합격플래너 1 · 2 · 3

입시는 전략과 계획만 잘 짜도 반절은 합격한 셈이다. 여기에 덧붙여 학습법 전문가와 심리상담 전문가의 ‘천기누설 수능 잘 보기 비법’까지 곁들여진 학습다이어리까지 손에 넣고 있다면 이미 ‘게임오버’다. 지혜경영연구소(소장 손기원)는 수험생 합격코치 다이어리 ‘D-100 합격플래너 1 · 2 · 3’를 최근 발간했다. D-100 합격플래너는 일일 · 주별 · 월별시간계획표, 시험성적관리표, 종합분석란, 전과목 진도 마스터플랜 등으로 구성돼 있다. (02)766-9455

각권 176p, 가격 1만9천8백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0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 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7년 1월 1일 ~ 2007년 2월 3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07년 2월 3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 정병조교수, 무진장스님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3년)	· 육조단경,주역(1)(2), 초발심자경문,한자학원론,어순으로푸는한문해석, 설문해자, 중국고전(1,2)한국고전(1),불교경전(1)	심재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심경호(고려대교수)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2), 차도문헌, 한국의 헌다례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전열교수, 지운스님, 적경스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등	김익홍(전동국대), 법인스님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일무교수, 김미혜교수 외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신5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5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정규: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7년 1월15일 ~ 2007년 3월 5일 입학금 20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2시(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한문학과 : 2007년 3월 8일 (목), 다도학과 : 2007년 3월 6일 (화), 불교미술학과 : 2007년 3월 7일 (수)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7년 3월 6일 (화)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M=I×A’ 무슨 뜻일까?

붇다빠라 스님의 마음등식… ‘기억무게=이미지×마음노폐물’

M=I×A.

이게 무슨 공식일까? 가뜩이나 수학 공식에 약한 사람들은 일단 겁부터 먹는다. 그러나 겁먹지 마시라. 특히 평소 수행이 무엇인지,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수행을 하면 내 마음과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이들이라면 이 공식을 주목해야 한다.

이뿐 아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한다고 해 왔지만 도무지 수행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면 이 공식을 물고 늘어져 볼 일이다.

수학공식 같은 등식을 두고 왜 수행을 논할까? 이 의문은 지당하다. 그러나 이 등식은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다. 이 등식은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수행자가 내놓은 마음에 관한 등식이기 때문이다.

1975년 출가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비구계를 받고 다시 미얀마 마하시 선원으로 수행 유학을 다녀와 현재 김해에 수행공동체인 반냐라마를 설립,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붇다빠라 스님이 이 등식을 일반에 선보였다.

미얀마 마하시 선원에서 인가받은 단 2명의 한국 스님 중 한 명이며 ‘붇다 담마 상가’ 최고지도법사로 활동 중인 붇다빠라 스님의 수행 체험에서 우러난 등식이기에 더욱 신뢰가 간다.



Buddha 수행법
붇다빠라 지음
SATI SCHOOL | 3만원

게다가 스님은 이 등식이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져온 정통 수행 이론의 현대화일 뿐 독창적인 것은 아님을 고백하며 그동안의 수행과 수행지도를 통해 터득한 마음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Buddha 수행법>이라는 한권의 책에 담아냈다.

등식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기억무게(memory)=이미지(image)×마음노폐물(asava). ‘기억무게는 번뇌다. 번뇌는 마음거울에 반영된 이미지에 기억의 노폐물, 즉 욕망, 편견, 이기심, 분노, 적대감, 선입관, 가치관 등이 결합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결국 수행은 알아차림하는 사띠의 힘을 키워서 노폐물을 이미지로부터 떼어내어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행은 알아차림 수행으로 노폐물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근육을 강화하려면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훈련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듯, 마음에 쌓인 피로를 풀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마음에 쌓인 기억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사띠 수행을 하라.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천이 없으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붇다빠라 스님의 <Buddha 수행법>에는 이러한 등식 외에도 마음과학(cittolog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마음이 오염되는 과정과 그 마음 오염의 해독제를 만들어가는 과정, 마음 노폐물을 제거하고 실재를 볼 수 있게 하는 사띠수행 등에 대해 자세히 풀어놓고 있다.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 시리즈 1권으로 펴낸 <Buddha 수행법>은 총 4편으로 나눠 수행문화, 마음과학, 수행기술, 수행이론 등을 꼼꼼하게 소개하며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사찰의 꽃살문 그 아름다움 속으로…

관조 스님 사진집, 기림사 · 운문사 등 문살 담아

“스님의 사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쳐 버리는 것들에 접근해 빛과 각도에 따라 생명력을 부여하고 삼라만상이 모두 비로자나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미술사학자 강우방 씨는 관조 스님의 사진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작품집과 수많은 수상경력. 한국의 사찰과 자연을 사진에 담았던 관조 스님의 이력은 스님의 사진이 단순히 사진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지난해 11월 입적한 관조 스님의 사진집 <사찰 꽃살문>에는 기림사 운문사 내소사 동화사 불갑사 쌍계사 통도사 선암사 범어사 등 14곳 사찰 전각의 꽃살문 사진이 수록돼 있다.

카메라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구현하려 했던 관조 스님의 정신이 그대로 느껴질 만큼 사진들이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사찰 꽃살문
이내옥 글
관조 스님 사진
솔출판사 | 4만5천원

선문답, 상담 이끄는 좋은 실마리였네

동양상담학 시리즈 불교관련 내용 ‘눈길’

향림 스님이 18년 동안 시자를 했는데, 그를 가르침에 다만 “원시자야”라고 부르면, 원시자는 “네” 하고 대답하였고, 운문 스님은 “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렇게 하기를 18년 만에 어느 날 바야흐로 깨치니, 운문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후로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않으리라”하였다. (향림 스님과 운문 스님의 일화-<벽암록(상)>)

스님 :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마조 : (대뜸 몽둥이로 치면서) 내가 그대를 치지 않는다면 천하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스님 :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 :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말해 주리라.

스님이 앞으로 다가오자, 마조 스님은 그의 뺨따귀를 후려치면서

마조 : (중요한 일은) 세 사람이 함께 모의할 수 없느니라.

(마조 스님과 어떤 스님 사이의 문답-<벽암록(상)>)

반복은 그저 말을 되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깨치지 못한 깊은 의미 속으로 상대를 끌어안고 들어가는 방법이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충격적인 반응을 접하게 되면 수행자는 자신의 존재 전체가 휘둘림 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본체를 깨닫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동양상담학 시리즈
박성희 지음 | 학지사 | 각권 7000원

동양상담학 시리즈 3권 <선문답과 상담>에 나오는 내용이다. 저자는 상담자들이 이런 방법을 상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선문답이 상담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실마리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한다.

2권 <불교와 상담>에서는 불교가 오래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상담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불교에서 상담적 요소를 찾아내 현대 상담 이론과 전략으로 정립하려는 노력과 불교 상담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또 용타 스님의 마음 알기, 마음 다루기, 마음 나누기를 주제로 하는 동사섭 수행을 상담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동사섭 상담’이 세계 상담계에 내놓아도 좋을 한국식 집단 상담이라고 9권 <동사섭 상담>에서 설명한다.

이밖에도 이 시리즈에는 <마음과 상담> <논어와 상담> <퇴계 유학과 상담> <도덕경과 상담> <모리타 상담> <나이칸 상담> 등이 각권으로 구성돼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止란? 분별망상이 본래없다 觀이란? 허깨비로 존재함을 보라

외인(外人)이 말했다. “대승의 수행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즉시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하고 후대에 전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에 혜사 스님이 답했다.

“지(止)란 무엇인가. 마음의 자체는 허망하게 분별하는 망상의 모습이 본래 없음을 알아 허망한 망념이 일어나 생사의 세계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을 ‘지(止) 수행’이라 한다. 관(觀)이란 무엇인가. 마치 허망한 꿈은 실제로 있지 않지만 허깨비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이러한 이치를 관찰하는 것을 ‘관(觀) 수행’이라 한다.”

혜사 스님(517~577)이 짓고 원경 스님(송광사 강사)이 옮긴 이 책은 지관(止觀)수행 이론서다. 대승지관법문은 중국 천태종 혜문 스님이 용수 보살의 중관론 심법(心法)을 제자인 남악혜사 스님에게 전하고, 혜사 스님이 저술한 것이다.



대승지관법문
남악혜사 지음
불광출판부 | 1만5000원

지관수행은 쉽게 말해 위빠사나(止)와 사마타(觀)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수행이 가능해 바쁜 일상의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수행이다.

이 책은 외인(外人)이 질문하고 혜사 스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으며, 자칫 놓치기 쉬운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주기 위해 내용별로 소제목을 붙여 이해를 도왔다. 매 쪽마다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각주를 상세히 달아놓은 것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한명우 기자

날씬하고 단단한 몸매에 스트레스 해소까지 하자

몸매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가.

현천 스님(아헹가요가협회장)이 엮은 <아헹가 요가>는 인도 전통 요가의 수련 동작과 호흡법 등을 모아놓은 지침서다. 아헹가가 스스로 체득한 요가 수행론의 핵심을 사진과 더불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놓아 누구든지 쉽게 아헹가 요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헹가 요가
현천 스님 옮김
禪 요가 | 3만8000원

<아헹가 요가>와 함께 출간된 <아헹가 행법 요가>는 요가 안내서로, 아헹가와 더불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제자들의 체험과 연구 등을 토대로 요가의 기본 원리와 수행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해설해 놓았다. 108가지의 자세를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yosiamun.com 추천도서

· 하루의 행복	세프라 코브린 피철, 9000원, 경성라인
· 대승찬강설	무비스님, 9000원, 불광출판부
· 티베트 불교입문	탈렉 린 림포체, 1만6000원, 청년사
·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	황명찬, 9800원, 지혜의나무
· 마음의 불을 꺼라	브렌다 쇼샤나, 9000원, 정신세계사

도서주문 (02)2004-8219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제5회 유심작품상 수상자 발표

시 서정춘·이경 시조 이근배, 평론 이상옥



정완영 서정춘 이경 이근배 이상옥

▲시부문-서정춘, 이경

서정춘-삶 · 죽음경계 포착
이 경-일상생활 평이하게

1968년 신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서정춘 시인. 서정시의 본령을 지키려는 남다른 시적 염결성은 그로 하여금 등단 30년이 가까운 1996년에서야 첫 시집 <죽편>을 간행하게 만들었다. 이번 수상작으로 결정된 '혼불 1'(창작과 비평, 2006가을)은 생명의 불인 혼불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한 것. 그는 혼불을 '떠돌이로 달아나는 / 너, 마지막 처음인 / 연금술아'라고 묘사하고 있다. 떠도는 혼불을 마지막이자 처음인 연금술로 파악한 것도 흥미로운 발상이지만 최소 언어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시적 운용은 무절제한 말의 홍수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시적 성취라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이구동성이다.

시 부문 공동수상자 이경은 1993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한 이래 <소와 뻐꾹새 소리와 엄지발가락><흰 소, 고삐를 놓아라> 등의 시집서 독자적인 개성과 시적 능력을 보여 준 바 있다. 그의 시는 한국현대 서정시의 큰 산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정주의 전통적이며 샤마니즘적인 시적 열정을 이어 받은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작인 '뜨거운 하늘'(시와 시학, 2006년 가을)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시장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봉천동 밥집 아주머니를 소재로 하여 '밥이 하늘'이라는 삶의 근원적인 명제를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했다.

밥을 하늘처럼 알고 밥을 팔기 위해 열심히 시장거리를 뛰어다니는 밥집 아주머니, 봉천동 오거리 밥집에 모여드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관찰이나 묘사는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다.

특별상에 정완영 원로시인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관하는 제5회 유심작품상 시부문에 서정춘씨의 '혼불1'과 이경씨의 '뜨거운 하늘'이 선정됐다. 또한 시조부문에는 이근배씨의 '간찰'이, 평론부문에는 이상옥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특별상에는 원로시인 정완영씨가 받게됐다. 정 시인은 88세의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조전집 완간을 통해 우리 민족의 삶과 숨결을 민족시의 원형인 시조로 형상화 함으로써 시조의 현대화에 큰 공적을 쌓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는게 심사위원단의 선정이유다. 이외에도 신인문학상에는 시부문에 배재형씨가, 시조부문에는 김혜진씨가 당선됐다. 또한 유심시조백일장에서는 장원에 김재순, 차상에 문부자, 차하에 강현남씨가 각각 뽑혔다.

▲시조부문-이근배

이근배-간결한 시행 돋보여

시조 부문 수상작은 이근배 시인의 '간찰'(현대시학, 2006. 12)이다. 이 작품은 2002년 불교문학상 수상작 '절필'에 이어 40년이 넘는 그의 시력에 하나의 획을 긋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근배 시인은 1961년 서울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의 신춘문예에 동시에 당선돼 화려하게 등단한 이후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우리문단의 대표적인 중진 시조시인이다. '간찰'은 이러한 기대가 구체적으로 실증된 작품으로 영원히 먹 냄새 마르지 않는 시를 쓰고 싶은 소망을 "목숨의 불티같은 것 / 한 자라도 적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여백을 살릴 줄 아는 행간의 여유와 간결한 시행의 운용은 이근배 시인 특유의 역량 발휘이자 시적 성취라는 점에서 그의 이번 수상은 이 상의 권위를 한 단계 격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삼사위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평론부문-이상옥

이상옥-지역 문학 평등실천

문학상에 있어서도 내로라하는 주요 문학상은 대부분 서울 중심 문인들에게 시상되는 것이 한국문단계의 현실이다. 이런점에서 올해 유심작품상 평론부문은 지역문학 진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옥 평론가를 선정했다고 심사위원단은 밝혔다.

이상옥 평론가는 1989년 시인으로 등단했다. 그러나 그간 비평집 <변방의 시학> <역류하는 시학> <아름다운 상처의 시학> <시적 담화체계 연구> 등 여러 권의 비평집을 간행하며 의욕적으로 비평활동을 전개해 왔다. 비평세계에 있어 다소의 명암굴곡이 있고 논리체계나 깊이 문제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지역문학을 지키면서 소외된 지역문학의 중심부화를 통해 이 땅의 문학적 평등실현을 위해 진력해 온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은다.

유심문학상은

1918년 9월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간한 불교지 <유심>은 같은 해 12월 통권 3호로 종간됐다가 81년만인 2001년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낙산사 회주 오현 스님, 신경림 시인 등의 후원으로 복간이 추진돼 3월 1일 통권 4호를 발행했다.

<유심>은 한국문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유심신인문학상은 2002년부터, 유심작품상은 2003년부터, 시조백일장은 지난해부터 신설해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매년 8월 만해축전기간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거행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초기작 전시 · 회고록 출간 등 다채

29일 故 백남준 타계 1주년 맞아 화랑가 '술렁'



29일 고(故) 백남준(사진) 타계 1주기를 맞아 백남준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다.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이 설치돼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렉트로닉 오페라' '참여텔레비전' 등 백남준의 초기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가 열린다. 이들 행사에 맞춰 백씨의 부인 구보타 시게코 여사는 27일 입국, 다음날인 28일에는 백남준씨의 유분이 모셔져있는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를 찾았다.

민간 전시공간의 전시도 29일부터 일제히 개막됐다. 서초구 잠원동의 필립 강 갤러리(02-517-9092)는 백남준의 활동을 많이 촬영해온 사진작가 이은주(60) 씨의 사진을 모아 29일부터 한 달간 '아 백남준' 전을 시작한다. 백남준의 방한 때 활동과 뉴욕 소호의 작업실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처음 공개되는 것들이 많다.

'백남준과 플럭서스 친구들'전을 29일 개막한 종로구 관훈동 갤러리 쌈지(02-736-0088)에서는 마당에 백남준을 기리는 젊은 작가 이지영 씨의 한복 설치작품을 전시해 놓았다.

갤러리 쌈지는 백남준이 74세로 사망할 때까지 활동상을 기록사진, 관련 텍스트와 영상 등을 통해 되짚어보고 그의 실험예술의 토대가 됐던 1960년대 전위운동인 플럭서스를 함께 조명할 계획이다. 전시는 3월 18일까지 계속되며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한편 생전의 백남준과 가까웠던 문화예술인 52명이 고인과의 추억을 회고하면서 쓴 글 모음 <TV 부처 白南準(삶과꿈)>도 29일 출간됐다.

이외에도 해외 특별 추모 전시로는 한국이 주빈국인 스페인 마드리드 아르코 아트페어 특별전 '환상적이고 하이퍼리얼한 백남준의 한국비전'(2월 13~5월20일)이 주목된다. <백팔번뇌> 등 국내 곳곳의 백남준 소장품 80여점이 유럽관객과 만난다.

김주일 기자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도자展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하는 '한중국제도자교류전'이 2월 7~14일 대구 대백플라자갤러리에서 열린다. 한중도자문화교류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현 · 한국학연구소장)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한국 전통도자예술전'과 '중국 당대 자사차호 작품전'으로 이뤄진다.

한국 전통도자예술전에는 문경 황담요 김억주 대표(상주대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중국 자사차호 작품전에는 서한당 · 담천해 등 자사차호 작가 80명이 참여한다. 장작가마로 구워낸 김억주 대표의 작품 200점과 중국 자사차호 작가들의 작품 200여점이 선보인다. 전시 기간 동안 도자기 제작 시연과 자사차호 감평법 강연, 포차시연회, <차와 삶>(도서출판 바나리) 출판기념회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박현 위원장은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중국 도자 관련 행정협회가 추천하고, 이싱시 인민정부가 인증한 예술인들"이라며 "6년간 개최해 온 한중국제도자교류전이 한중간 우호와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도자문화교류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경, 중국에서 '한국 도자예인 초청전'을 개최할 예정이다.(02)3673-5634

여수령기자

명인명무전-김지원씨 공연

김지원(한양대 교수)씨의 '한국의 명인명무전-전통춤 공연'이 1월 31일 서대문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 김 교수는 쌍검무와 입춤, 장고춤, 소고춤 등을 선보인다. 특히 쌍검무는 최승희 선생이 추었던 것을 재구성한 작품. 김씨는 이날 공연에서 선이 굵고 힘찬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이다. (02)2278-5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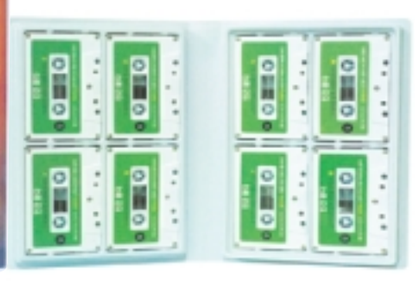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DVSS
부처님의 소중한 사찰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CCTV, DVR 설치 및 판매 전문
DVR+모니터+(주 · 야간)적외선카메라 4대 = 250만원, 카메라 1대 추가시 +25만원
작동점검, 케이블보수, 기기청소 등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CCTV
3대 만족
▼
품질,가격,서비스
사업내용 : CCTV판매 및 설치 공사
"보안은 예방"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 지사장 혜철 합장
현도시스템 전화 043)732-5560/011-9422-8453

2006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법문세트
(오디오테이프 8개 1세트)
24,000원(무료배송)
인간 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Human Buddha, His Life and Thought
부처님의 생애(팔상성도)를 중심으로 구성, 각 생애에서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최고의 법보시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 그분은 항상 대중과 함께 지냈고, 손수 일을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옷 한 벌과 발우 하나뿐이셨고 공양은 얻어서 드셨습니다. 항상 맨발로 다니셨고 길에서 주무셨습니다. 그곳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무르며, 고민을 털어놓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막힘없이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졌고, 엎드려 절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분은 다시 선정에 드셨습니다.이것이 부처님의 일상생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 부처님의 삶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이상적 모델로서 부처님의 삶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 법문내용
Ⅰ 〈도솔래의상〉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Ⅱ 〈비람강생상〉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Ⅲ 〈사문유관상〉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
Ⅳ 〈유성출가상〉 지광 스님(능인선원 원장)
Ⅴ 〈설산수도상〉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Ⅵ 〈수하항마상〉 통광 스님(쌍계사 강원 강주)
Ⅶ 〈녹원전법상〉 성열 스님(강남포교원 원장)
Ⅷ 〈쌍림열반상〉 원담 스님(조계사 주지)
이 법문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인간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의 여덟분의 법주(종범 월운 지선 지광 수진 통광 성열 원담)스님들이 200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광주 동구 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매장 시효없는 '권력' … 그들은 죽지 못한다



프롤로그-하

권력이동의 격변기-왕 · 왕비의 장례



조선 마지막 임금인 순종의 능을 사역하는 인부들.



얼음 저장고의 모습. 사진은 경북 청도 소재 석빙고 유적

죽음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죽은 자의 입은 닫혀있지만 산자의 입은 왕성하다. 민가에서 맞는 혈육의 죽음은 곡진한 슬픔마저 태부족이지만 왕의 죽음은 삼엄한 권력이동과 동의어다.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긴 자는 모든 것을 갖고 진 자는 빈 깡통 뿐이다. 국상은 대선과 같다. 장지 선정, 장례 절차에서 입김이 통하면 출세요, 후왕의 의중을 잘못 파악하면 죽음마저 감수해야 한다. 조정 대신들에게 사활을 건 암투의 계절이 국장이다. 수천 명 민초들에겐 무보수 자원봉사, 피땀 어린 부역의 계절이다.

현직 대통령이 죽으면 국가비상사태다. 계엄령이 선포된다. 10 · 26때 그런 체험을 했다. 왕의 승하 직전에 계령 즉 계엄령이 선포된다. 왕의 죽음, 국장은 동시대 최고의 국책사업이다. 새로 뽑힌 대통령은 화려한 취임식과 장밋빛 정책 구상을 펼치지만 새로 등극한 왕이 맡는 첫 국사는 국상이다.

계령이 발동되면 병조(국방부)는 군사를 동원하여 왕궁을 겹겹이 에워싼다. 승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왕세자, 대군 이하의 친자, 왕비와 내명부, 외명부의 공주 등은 모두 관과 웃옷을 벗고 머리를 풀며, 금, 은, 옥, 비취, 노리개 등을 제거한다. 겉으로는 지극한 슬픔 보이기 경연을 하지만 속으로는 손익계산에 숨이 가쁘다.

예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고 중앙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 도성과 지방 관청으로 하여금 계령을 철저히 지키게 한다. 5일간 장이 열리지 못한다. 왕이 승하한 후 3개월이 지난 뒤 졸곡(죽은 지 석 달 후 지내는 제사)을 한다. 졸곡 전까지 혼인, 돼지, 소 등의 도살이 금지된다. 국상이 나면 당분간 백성은 혼인도 못하고 고기 구경도 못한다.

국상이 나면 장례위원회가 설치된다. 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감이 그것이다. 빈전도감의 제조(지휘 감독관)가 세 명이고 그 중 예조판서가 당연직이다. 빈전도감의 업무는 세 기관 중 비교적 간단하다. 소렴과 대렴에 입을 옷, 빈전(일반 백성은 빈소라 한다), 찬궁(관을 설치하는 일), 성복(상복을 입는 일) 등을 맡는다. 국장도감은 호조판서, 예조판서가 제조를 맡고 집기류, 악기류, 대여(관을 싣는 큰 가마), 지석, 제기, 책보 등을 만드는 일을 맡는다.

산릉도감이 가장 힘들고 조심스런 업무를 맡는다. 능을 조성하는 일을 총 지휘하며 공조판서(건교부장관)와 선공감정이 제조로 임명되고 당하관이 10명이다. 광중(무덤)을 파고 정자각, 현궁, 비각, 수복방, 제실 등을 짓는다. 얼얼한 국책 사업이 시작된다. 한성부 판윤(서울시장)은 장지까지 가는 다리, 길을 수리하고 설치한다.

3도감의 도제조(총책임자)는 좌의정이 맡는다. 3도감 총호사라 불리고 장례의 모든 일을 총괄 처리한다.

조선의 국장제도는 태조 이성계가 죽자 처음 국장을 맞은 3대 태종이 송나라의 제도를 도입해 확립했다. 고려의 국장은 1개월 이내였고 두 달을 넘긴 예가 드물다. 조선은 신생 왕국의 위엄을 보이려 왕과 왕비는 국장기간이 5개월, 정4품 이상 사대부는 3개월, 그 아래 관직은 1개월로 장례기간을 국법으로 정했다. 장례가 겹치면 상복 입고 1년 내내 보내기도 한다. 죽은 자는 빨리 흙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더운 날에 죽은 왕은? 시신이 썩는 것은 어떻게?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서빙고동은 얼음 저장고가 있었다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동빙고는 왕실 장례, 제사 전용, 서빙고는 왕실의 주방용과 여름철에 문무백관에게 하사하기 위해 얼음을 저장했던 곳이다. 모두 목빙고였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지 않다. 경주 석빙고 등 재질이 돌인 것은 오늘날 여러 곳에 남아 있다.

겨울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한다. 두께 12㎝ 이상, 큰 덩어리는 한 정 즉 사방 6자(1.8m)의 얼음을 빙부들이 떴다. 물론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을 택해서.

왕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공조에서 빙반을 만든다. 길이 3m, 넓이 1.6m, 깊이 90㎝다. 냉동보관소가 없던 조선시대 냉동 영안실이다. 빙반을 바닥에 놓은 다음 그 위에 대나무로 만든 평상을 설치한다. 평상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다. 그 위에 다시 빙반을 설치한다. 습기를 흡수하기 위해 마른 미역을 사방에 쌓아놓고 계속 갈아댄다. 이것을 '국장미역'이라 한다.

조선왕조는 왕궁 중심 80리 안에 왕릉을 택지시켰다. 당시 10리는 5.2㎞, 80리×5.2㎞=41.6㎞, 마라톤 코스 거리와 비슷하다. 능제를 지낼 왕이 서둘러 출발하여 하루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능역 공사는 대략 3~5개월 걸린다. 동원된 인원은 6000~9000명이다. 택지는 상지관이 풍수지리설에 따라 하고, 왕이 친히 현장에 가서 지세를 살피기도 했다.



조선의 왕들은 편히 잠들지 못한다. 끊임 없는 역사의 흐름속에 서 있다. 사진은 선정릉 중 정릉(11대 중종 능).

조선의 국장제도 태조 장례때 송나라에서 도입해 확립
왕이 죽으면 졸곡 전까지 백성들 혼인 못하고 도살 금지
능역 공사 3~5개월 소요…동원 인원 6000~9000여명
왕릉 택지 지역 주변의 무덤 강제 이장하고 마을도 철거

22대 정조는 수원읍치 화산에다가 왕릉을 택지하려 했다. 아버지인 사도세자 왕릉이다. 수원은 궁궐에서 88리다. 대신들이 반대했다.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제부터 수원까지 거리를 80리로 명하노라.' 절대왕조 시대이니 왕명은 법이다. 지금도 수원 토박이들은 수원80리를 고집한다. 매년 능제가 거행된다. 능제 땐 소를 잡아도 된다. 능제음식으로 인해 왕릉갈비가 생겼고 오늘날 수원갈비다. 태릉갈비, 홍릉갈비 모두 마찬가지다.

왕릉은 천하의 명당이다. 내노라하는 풍수들이 모두 동원된다. 왕릉으로 택지되는 지역은 가문의 영광일까? 천만에! 가문의 불행이다. 무자비한 철거가 시작된다. 왕릉이 들어서면 주변에 산재한 무덤은 강제 이장이다. 주변 마을도 철거다. 철거 이주민 마을이 오늘 날 수원이다.

수원 아래 용인이 있다. 그 아래쪽에 진천이 있다. 살아 진천, 죽어 용인이라고? 용인은 수원 80리를 벗어난 안전지대다. 양반 문중에서 마음 놓고 선산을 쓸 수 있는 곳이다. 용인 땅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진천이 제2 후보지가 된다. 세도가들의 선산이 밀려오면 진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용인은 음택(무덤터)의 명당이고 진천은 양택(집터)의 명당이라고 열심히 홍보했다.

'여인천하'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다. 신라 이후 여왕이 등극한 예는 없지만 왕실 여인들의 역할이 만만치 않다. 왕권 창출, 권력 이동과 세습, 외척의 득세와 몰락은 여인들과 연루되어 있다. 장희빈, 문정왕후, 명성황후 등 여느 왕 못지않게 굵직한 이름으로 새겨진 이들이 많다. 여인들의 품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도표 참조)

벼슬을 전혀 못한 무지랭이 필부필부가 죽으면, 지방을 쓸 때 필부(匹夫)는 학생(學生), 필부(匹婦)는 유인(孺人)이라고 쓴다. 죽으면 말석 벼슬을 추서하는 셈이다.

매장 · 화장 논의가 분분하다. 불가(佛家)에서는 일치감치 화장을 시행하여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 최근 화장률이 매장률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삼천리 구석구석 봉분이 자욱하다. 왕릉은 매장 시효가 없다. 그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지 못한다. 고통스런 삶을 역사와 함께 짊어지고 가야한다. 태조 이성계의 무덤부터 찾아가자.

글=이우상(소설가) ·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왕실 여인들의 품계

내명부(內命婦) : 대궐 안에 머물면서 작위를 받은 여인들을 일컫는다. 내명부의 우두머리는 중전이다.
후궁들은 1품에서 4품 벼슬을 받고 궁녀들은 5품에서 9품의 벼슬을 받는다.

	내명부	세자궁
정1품	빈	
종1품	귀인	
정2품	소의	
종2품	숙의	양제
정3품	소용	
종3품	숙용	양원
정4품	소원	
종4품	숙원	승휘
정5품	상궁, 상의	
종5품	상복, 상식	소훈
정6품	상침, 상공	
종6품	상정, 상기	수규,수칙
정7품	전빈, 전의, 전선	
종7품	전설, 전제, 전언	장찬,장정
정8품	전찬, 전식, 전약	
종8품	전등, 전채, 전정	장서,장봉
정9품	주궁, 주상, 주각	
종9품	주변치, 주치	장장, 장식,장의
	주우, 주변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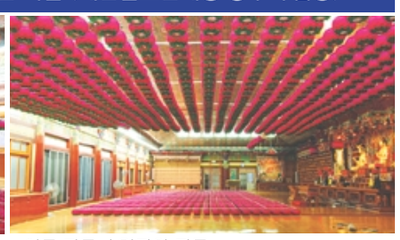
외명부(外命婦) : 궁궐 바깥에 머물면서 작위를 받은 여인들을 일컫는다. 공주 · 옹주 · 군주 · 현주를 비롯한 왕과 세자의 딸들, 국왕 친척의 부인, 관리의 부인들이 모두 해당된다.

	왕의 유모	왕비 의모	임금 의딸	세자 의딸
			공주(적녀) 옹주(서녀)	
정1품		부부인		
종1품	봉보부인			
정2품				군주(적녀)
정3품 당상관				현주(서녀)

	종친의 처	문무관의 처
정1품	부부인(대군의 아내), 군부인	정경부인
종1품	군부인	정경부인
정2품	현부인	정부인
종2품	현부인	정부인
정3품(상)	신부인	숙부인
정3품(하)	신인	숙인
종3품	신인	숙인
정4품	혜인	영인
종4품	혜인	영인
정5품	온인	공인
종5품	온인	공인
정6품	순인	의인
종6품		의인
정7품		안인
종7품		안인
정8품		단인
종8품		단인
정9품		유인
종9품		유인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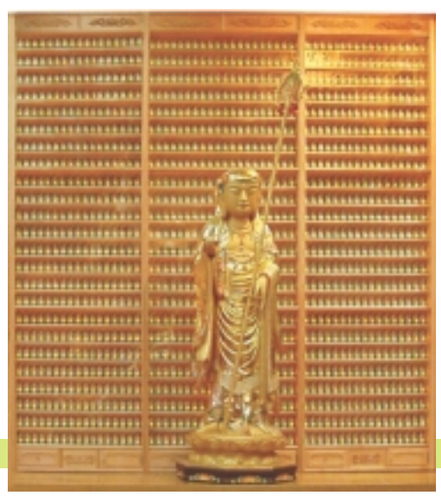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 1Box(9×4.4) 8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영어도 배우고 해외 포교에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스님)
경남 불교대학 세원사
055)221-7730
016-428-6665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경전 · 명리 주역
학인무료강좌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51)557-6682(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눈 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범천명리강의실

사주(입진법)	3월 5일(월) 낮2-5시 첫강의
기문둔갑	3월 6일(화) 낮2-5시 첫강의
사주(용신)	3월 7일(수) 낮2-5시 첫강의
육 효	3월 9일(금) 낮2-5시 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389-6597(연신내)

무각닷컴 사주클럽
격국을 잡아야 용신이 보입니다. 사주가 늘지 않는 분 직접 사주를 풀면서 용신분석 강의 지방계신 분들도 인터넷 강의와 문제지 매주 발송 초보 6개월 완성 월 10만 파격가
전화상담(만원), 방문상담(이만원)
주 2회 강습
02)831-2202/ 019-838-6908
www.mukak.com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정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청지방
011-9284-6136

청정한 나반도량 입니다. 천일 기도 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부산시내 사찰,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무료로 수양할 불자님도 모십니다
011-584-3535

하루삼일기도법회 봐드립니다
054)956-0152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38-1529

부전스님 필요하신 사찰 연락바랍니다
010-9929-950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50-60세)
011-483-5639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독경 테이프 출시한적 있음)
010-2580-4577

불사하실분
고통의 시달림 몸과 마음을 삼보전에 맡기시고 남은 여생 마음 편히 살아가실 보살님 인연바랍
018-406-3073

비구니 부전스님 모 심
(태백, 하동)
010-2291-3934

지솔한 신의와 믿음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수행해주실 능력있는 비구스님과 전통문화와 대체의학에 관심이 많으신 처사님 연락바랍니다
010-3348-4242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해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창건 사찰내에서 매점 운영하실분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1-259-598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011-611-8867

스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 경력이 오래 되시고 건강하신분
• 사주 명리 가능하신분
010-2286-7923

구합니다
(암자나 사찰)
• 지역은 관계없음
• 전세나 월세
같이 공부할 행자나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8828-3002

사찰 암자,포교당 창건하시는 스님안내
법당불사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큰 법당에 모셔야할분 후불탱, 부처님을 모셔야 하는데 막상 조성을 하자니 날짜도 없고 금전으로 고민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은 대웅전에 모실분 후불목탱순금, 칠성목탱순금, 신중목탱순금, 부처님좌대 포함 4자3치 삼신불 기타 전체를 스님해외 사정상 절반도 안되는 가격 인연바랍.
대작품 가능성이 있는분만 답사
010-6411-2882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氣중국기공훈련반

중화양생익지공
모든 중생제도 최고의 지도자 양성
천수, 천안, 팔만사천 법문 인체속에있다.
경락주천, 소주천, 대주천, 단도주천, 천, 지, 인 완성지도함
전화 : 전남 순천 061)741-3053,016-632-0345
전남 광주 062)376-3053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풍수와 사주를 배우는 대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개인지도 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노인전문요양병원 스님 및 불자모심

최고시설을 갖춘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설 무량수전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스님 및 불자를 모십니다.(완전무료)
◆ 대상 :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중증의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인 노인과 스님
◆ 문의 : 053)471-0991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 : 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촛불잘밝히는방법★장사(사업)잘하는방법★결혼인연
행복을찾아주는물어보세요
왕따 소외감 비만 스트레스 악몽 변비 알콜중독 부부갈등 난폭한성격 원한관계 우울증 심근경색 코고는사람
불공 생일 이사 개업 묘지이장 방생 입학 시험합격 기타
업장소멸 해석 알고 싶은분 능엄신주 액자 있음 테이프 활용
영가천도 · 삼재 지장경 능엄신주
우리말대불정 천수경 약사여래경
직장인을 위한기도★가족이함께기도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자녀 탈선 예방 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돕기 · 남을위한기도
대학입시기도
사법 · 행정 · 취업
물어보세요 011-817-5496 010-7377-9446 019-434-0878 017-520-7546 010-2331-0354 016-787-3977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철야기도 100일 기도
서울 · 부산 대구 · 마산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 정 : 각 암 대종사
• 부종정 : 혜 산 • 중앙종회의장 : 정 관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법 진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불교의식 범음 수련생 범패 모 집

수림사에서는 불교 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교육과정
◆ 기초과정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
◆ 시식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 교육방법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5시
◆ 접수일시 : 수시접수
◆ 개 강 일 : 2007년 3월 6일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수림사 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 011-9769-8868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2. 7부터 (수 · 목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대전지역
● 법당:25평
● 요사:70평
● 부지:120평
● 가액:2억

● 위치:경기 광주
● 법당:170평
● 요사:100평
● 부지:3500평 (외2000평)
● 가액:65억

● 위치:경남
● 법당:30평
● 요사:120평
● 부지:21700평
● 가액:2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도심속의예쁜포교당

● 위치: 부산광역시 광안 전철역에서 2분거리
● 대지: 약 100평
● 건평: 1,2층 포함 55평
● 가액: 절충

011-345-51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 시내
● 평수: 40평(법당, 방2, 공양간)
● 2층건물중 2층(옥상 단독사용)
● 상가아파트지역, 원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1-258-1147

사 찰 안 내

● 위치: 순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243평
● 건물 25평, 요사채 20평
● 가액: 2억 5천만원(절충가능)
주차가능 , 꼭 하실분 전화요망
스님건강관계로 급 양도코져함

017-875-67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변
● 대지 125평, 법당 30평
● 옥불, 삼존불
● 1층 단독 요사채 30평
사무실 10평, 방3개
● 가액 : 3억 9천, 절충가능
(은행융자6천5백)

017-232-3389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
● 부지:500평
● 법당:20평
● 요사:20평
● 가액:1억 9천만원

● 위치:서울
● 부지:300평
● 법당:16평
● 요사:35평
● 전세1억5천만원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 법당, 요사채, 황토방 넓은 정원,각종 유실수
● 3700평
● 보증금 200만원 년350만원

017-813-912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고령
● 평수: 153평
● 건물: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 가액:3천7백만원

018-541-189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55)934-1719
011-9571-1710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해면 소재지
● 대지 75평, 임법당 30평, 방2칸, 창고, 텃밭
● 스님오셔서 불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넓힐수도 있음
● 명사이십리 병곡해수욕장 근접. 바다방생지 5분거리
● 가액 : 6천 5백만원

016-677-1935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90평은 텃밭으로 사용중)
● 방4개, 후원, 창고, 화장실
● 가액 4,000만원(가격절충가능)

010-6401-4939
010-5631-8439

● 위치: 전북 익산
● 사찰부지 300평 사유지 60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산신각1동
● 100년된 약사여래불 모셔져 있음
● 가액:1억 7천만원

대원불사 (한국 사찰 컨설팅)
연락처 02)454-3369
H.P 011-775-8709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북 구미시 도개면
● 임야:7,350평
● 도로변에서 가까운 사찰 (정자) 별장, 묘터 명당자리
● 가액 : 1억

054)471-3997
011-513-931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 찰 안 내

〈사 찰〉
● 부산시내 바다전망 좋은 절
● 전통기와(포)법당 25평
● 120년 역사
● 요사 2동
● 가액:4억

〈사 찰〉
● 건물 3동, 부지:3만 3천평 (관리지역 7천평)
● 위치:삼랑진
★산세 좋고 물 좋은 정남향터 120년 역사
● 가액:4억

※ 부산시내 암자 사찰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 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 , 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 : 전체평수 4390평, 대지 2000평
● 허가진행 중 사찰건립계획 요사 겸 주택계획 진행 중 현재 토목설계 1000평 허가 득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 화장실 10평
●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주목군락 형성. 주택1동, 창고 1동
● 촌집 전원주택(텃밭 가능) 목조기와 주거가능
● 대지 약 100평, 건평 약 15평, 창고 약 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지하수 청정 1급수
● 양도가액:2억 9천만원

011-741-3415 / 010-6283-979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에서 5분거리
● 부지: 550평
● 법당: 20평, 관음전 6평
● 산신각 4평, 요사채 30평(단청필)
● 특징: 심야전기 보일러 , 노송이 어울려져 있는 아름다운 신축 법당(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함)
● 가액: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6727-8890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대지:200평
● 임야:3775평 (관리지역)
● 지방도로 150m 인접
● 가액: 1억 3천만원

054)862-3996
011-9330-2810

포 교 당 안 내

● 위치:일산 7층중 5층 114평
● 가액:3억8천5백만원(비품제외) (은행융자 2억1천5백포함) 4년전 신축건물을 분양받아 최고의 시설로 하였으며 당시 가격으로 4억8천이 들었으나 사정상 좋은조건으로 급 양도

011-749-455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 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1-595-787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산시 최고 중심 최고의 시설
● 건물: 5층 건물에 5층(EV유)
● 평수: 80평, 법당 40평, 주지실 종무실, 후원 3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사정상 급 양도
● 인수나 같이 운영하실분 모십니다

053)811-102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평수 : 건평 40평,
● 연못 있음, 텃밭있음, 남서향, 산밑 토굴
● 가액:1500만원

017-379-2201

사 찰 안 내

● 위치:전북 정읍시 산외면
● 대지100평,점유지1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동, 방6, 산신각 5평
● 가액:6500만원
● 산수가 어우러진 도량

011-1776-9923

사 찰 안 내

● 대지 200평, 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산신각, 용왕당 각5평
● 교통요지, 도로인접 산세수려
● 가액 4억(절충가능)

016-817-0144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차로 2~3분 거리
● 법당 30평, 요사채30평, 10평 조경완료
● 바로 앞 큰 계곡이 있어 경치수려
● 심야전기 지은지 2년
● 가액: 3억 (절충가)

016-274-3170

사찰(터)안내

● 위치:경북 의성군
● 대지 200평
● 임야 3775평(관리지역)
● 지방도로 150미터 인접
● 가액:1억 3천만원

054)862-3996
011-9330-2810

별장,토굴안내

● 장소:경남 산청 신안면
● 목조건물 2동

011-838-6568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20평,요사40평,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오래된 작은 사찰 구함

법당은 작아도 요사채 넓은곳
계속커 나갈수 있는 사찰
텃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010-2606-1299

토 굴 안 내

● 위치:경남 창녕군 남지읍
● 평수:대지200평+국유지 210평 사용평수:410평 황토방1(8평)옛날 기와집1 (방2,부엌1,화장실1) 잔디마당, 연못있음
● 가액:7500만원

017-541-213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관악구청
● 5층건물의 2층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8675-5858

도심속의 아담한 암자

● 위치 : 부산시내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8천3백만원

010-7777-8575
평생 같이 할 도반스님을 모십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 평수 : 2,3층 각 30평
● 2층 - 요사, 큰방, 사무실, 부엌, 작은방.
3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지장단, 산신각, 각불탱화.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167-1774
032)662-1774

포교원안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명 당 터 를 보 입 니 다

● 면적 : 13350평(입) 西向
● 위치 : 경남 고성 IC인접(대전-통영 고속도로)
● 형태 : 陰處로 나무 숲이 꼭대기까지 좋음
● 용도 : 관리지역인 만큼 길, 집등 20%까지 사용
● 기대 : 나뭇잎처럼 생긴 만큼 비구니 스님이나 통큰 여자분께서 잘 활용 했으면 좋겠음
● 가격 : 평당 2만원 이상이나 절충하겠음
● 길은 아직 미비나 290평 사면 해결(坪 10만원 入口) 간벌함으로 지금 재목 선별해서 사용가능

연락처 010-2245-4862

增補 太極四柱

孫中山先生은 30餘年間 命理學을 硏究하였으나 古典 命理學이 陰陽五行과 相生相剋原理가 論理上 크게 잘못된 것임을 發見하고 새로운 理論을 定立하여 책을 쓰게 된것이다.

古典 命理學은 10年을 공부해도 끝이 없고 오판(誤判)과 실수(失手)가 많지만, 太極四柱는 감정(鑑定)이 正確하고 論理가 정연(整然)하므로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배우기가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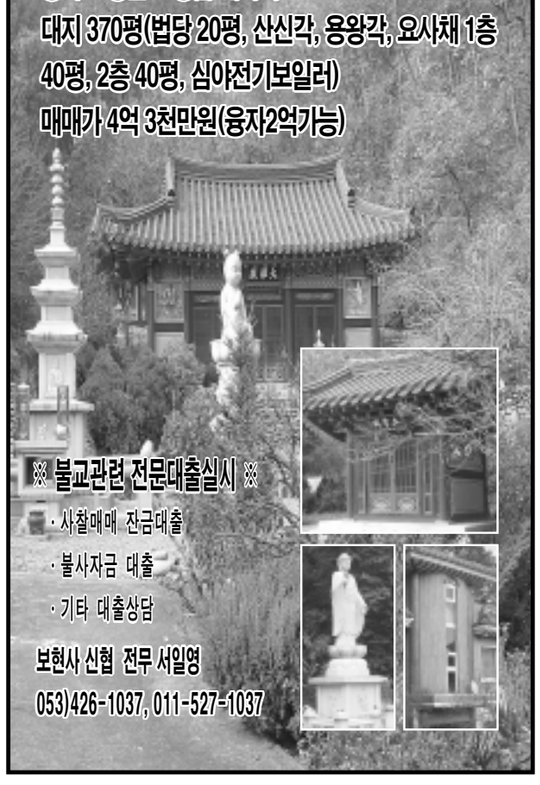
이책은 著者가 前日에 出刊한 太極四柱를 획기적(劃期的)으로 수정보완(修正補完)한 것으로 著者가 多年間에 걸친 경험적실관(經驗的實觀)을 통한 핵심적(核心的)인 理論과 자료(資料)들을 모아 편집(編輯)한 것으로 四柱를 공부하는데 좋은 지침서(指針書)가 되리라 확신한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 감정하므로서 공부하는데 많은 참고(參考)가 될것이다.

◆ 著者 : 孫中山 (定價:25,000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會長(74세)
韓國體質醫學會 會長(민중의술살리기 대구 · 경북 연합 고문)
농협 100080-56-022361 예금주 : 손선영

주문 전화 053)324-2468 053)326-4585

사찰안내 및 대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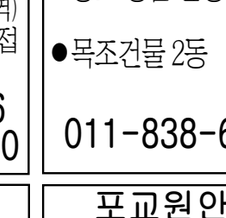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알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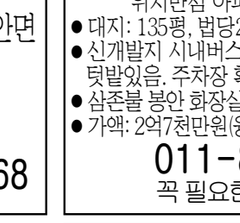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플라스틱 제대로 쓰면 안전

걱정만 하지말고 꼼꼼히 살피세요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찜찜하다. 집안 곳곳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가 주부들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플라스틱에서 유출되는 환경호르몬이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는 방송 보도 때문이다. 용기 제조업체는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므로 문제없다"고 하고(한국플라스틱주방용품공업협동조합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현행 기준규격에 적합한 플라스틱 용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걱정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 유해 논란 속에서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편은 단 하나. '바로 알고' 쓰는 것이다.

환경호르몬 불임 · 소아암 발생에 영향

재질 표시 잘 살펴야 … PP제품 가장 안전

가열 말고 끓인 물에 20초 정도 담가 소독

▷ 환경호르몬 아세요?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도 한다. 이름 그대로 우리 몸속에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해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물질이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환경호르몬은 생식기 기형, 정자 수 감소, 성장 지연, 면역기능 이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남성 불임이 증가하고 소아암 발생율이 높아지는 것도 환경호르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쓰레기를 태우면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수은이나 카드뮴 · 납 등의 중금속, 농약이나 살충제 성분, 플라스틱 등이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받는 물질들이다.

지난해 TV 프로그램 'SBS 스페셜'이 플라스틱에서 흘러나오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남자 아이들을 여성화시키고, 여자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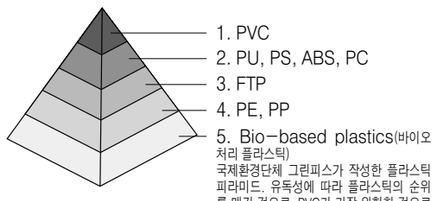
하지만 한국바이닐환경협의회는 "프탈레이트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축적되지 않고 신체 내에서 빠르게 화학 작용을 일으켜 배설된다"며 무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인 하나코비 역시 "공기나 물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극히 미량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을 놓고 마치 플라스틱 용기가 환경호르몬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플라스틱에도 종류가 있다

플라스틱이라고 다 같은 재질은 아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으로는 수도 배관 · 비옷 · 샤워 커튼 · 포장용 필름 등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젖병이나 음료수통 · 헤어드라이기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PC), 반찬용기 등의 주방 용품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폴리프로필렌(PP) 등이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유해 물질 발생 기준으로 만든 플라스틱 피라미드의 맨 위는 폴리염화비닐(PVC)이 차지해 가장 유해한 물질로 꼽히고 다음이 폴리카보네이트(PC, PET), 폴리프로필렌(PP) 순이다. 바이오 처리된 플라스틱은 미생물 분해가 가능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작성한 플라스틱 피라미드. 유독성에 따라 플라스틱의 순위를 매긴 것으로, PVC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 플라스틱 용기 안전하게 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질은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이다. 흔히 PET(피이티)라 부르는 음료수통이나 아기 젖병, 주방 용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열을 받으면 '비스페놀A'라는 환경호르몬을 배출한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제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보통 플라스틱 제품에는 재질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살핀다.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폴리카보네이트(PC, PET) 제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지나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다만,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물에 넣고 삶는 등 열을 가하게 되면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삼간다. 뜨거운 음식을 자주 담아야 하는 그릇이라면 유리나 도자기로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 찬 음식이라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환경호르몬은 기름에 용해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기름을 담는 병은 유리병을 권한다. 젖병 역시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지 말고, 소독을 할 때는 물을 끓인 후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20초 내외로 담가 소독한다.

음료수 캔의 내부 코팅제에도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가 포함돼 있는 만큼 뜨겁게 데워 먹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또한 찌그러진 캔음료나 통조림도 피하는 것이 좋다. 생수용기인 PET 역시 사용을 줄이고, 구입한 제품은 재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22. 사천의 다관(茶館)

낯선 곳에 막 도착한 여행자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곳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숨결이 진하게 배어 있는 삶 자체가 생동하는 장소일 것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다. 그 속에서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생산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일찍이 중국사회의 차 문화를 선도해온 문인 계층은 위로는 벼슬에 나아가 정치에 참여하고 아래로는 서민과 상인의 중간 계층으로 사회 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당나라 때부터 규모를 갖추기 시작한 다관(茶館)은 청 말(淸末)에서 민국(民國) 초(初)에 가장 많이 형성됐다.

대화 인간관계 형성 정보교류 등의 장소 역할

민간 문화와 결합 중국의 일상적 차문화 형성


사천의 다관 풍경

중국 사천의 한 도교 사원, 정리 되지 않은 사원 앞마당에 30도가 넘는 기온에서 이글거리며 타고 있는 수 십 개의 붉은 촛대가 눈에 들었고 그 옆 다원(茶園, 혹은 茶館)에는 남 녀노소 할 것 없이 마작을 하며 즐겁게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향명(香茗)이라는 다원의 글씨, 작은 나무 탁자, 등받이가 있는 대나무 의자 이외, 별 다른 다구(茶具)없이 유리컵 혹은 도자기 잔에 차를 넣어 뜨거운 물을 철철 넘치게 부어 놓은 차뿐이었다. 찻잎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듯, 10위엔(圓)부터 고급 차는 상당히 비싸 보였다. 도교사원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치열함과는 대조적으로 나른하기까지 한 다원(茶園)의 광경은 한때 전성기를 이루며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던 번화했던 장소와는 다른 광경이었다. 지금 사람들에게 다원(茶園)은 음식, 마작 등 여가를 즐기는 일상 속에 존재 하고 있었다.

사천지역은 분지이다. 해를 보기가 힘든 지역으로 "머리위에 맑은 하늘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다관 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느 곳이든 다원이 있다. 심지어 다원에서 세수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차 마시고, 아침을 먹고, 사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경극을 보며 일상적인 생활을 즐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정보를 얻고 자신을 알리고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차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얻는 장소였다. 전문적으로 상인이 물건을 거래하며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책을 보면서 토론하고 시상을 떠올리며 공연을 보는 서차관(書茶館)이 있고, 문인들은 글을 쓰고 그림을 감상하며 여행자들이 경치를 감상하는 야차관(野茶館)이 있다.

1934년 북경시 상무회에 등록한 다점(茶店)만도 100개가 넘었으며 차를 다루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만도 10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다점들은 생산된 차를 다관에 공급하는 것 외에 시민들의 차 수요를 공급하는 장소였다. 다관은 차와 곡예, 시회, 희극 등 민간 문화 활동과 결합하여 독특한 다관 문화를 형성하여 중국의 일상적인 차 문화를 만들었다.

물론 민국이후 다관에서 차를 마시는 개개인의 손님은 줄어들어 주로 연극하는 장소로 바뀌지만 처음으로 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교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 안에는 경극(京劇), 평극(評劇), 화극(話劇) 등이 공연되었으며 사람들이 친밀함과 상호 화합을 가지고 동포 화합(同胞 和合)의 정신을 찾았다. 노사(老舍)의 극작 <다관(茶館)>은 당시 사회의 축소판으로 다양한 인물을 통하여 청말 민국초 북경 다관 문화의 한 측면을 잘 반영한 것이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3) 가지산 석남사

금당 뒤 눈맛 좋은 대숲 병풍처럼 둘러


남사소나무.

신라 하대의 도의선사(道義禪師)는 육조 혜능의 남종선을 신라에 처음 소개한 인물이다. 그의 선지는 상수 제자인 염거화상을 거쳐 3대 보조선사(普照禪師)에게로 전수되었다. 보조선사는 전남 장흥 가지산에 보림사를 창건하고 가지산문을 열었다.

그 산문을 통해 고려 왕건의 후원자였던 형미선사(逈微禪師)와 가지산 석남사를 창건한 진공선사(眞空禪師)가 배출되었다. '가지산'이라는 지명과 함께 석남사에 도의국사 부도탑이 있는 것도 그런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가지산은 해발 1,240미터로, 백두대간에서 남으로 내려온 낙동정맥의 영남 팔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산의 항열로 치면 백병산(1,259)-통고산(1,067)-백암산(1,004)-주왕산(720)-단석산(829)이 그의 형들이요, 고헌산(1,033)-신불산(1,209)-천황산(1,189)-영취산(1,050)-원효산(922) 등 영남 7악이 모두 그의 아우들이다.

그와 그의 아우 산들을 합쳐서 흔히 '영남의 알프스'라고 일컫는데, 가지산 도립공원이 바로 그 산군(山群)들로 이루어져 있다.

언양을 지나 석남사가 가까워지면서 멀리 가지산이 바라보인다. 1천 미터를 훌쩍 넘는 높이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봉우리들이 모두 그만그만한 높이를 자랑하다보니 군계일학같은 장쾌함은 없다.

일주문에서 청운교까지 80~100여 년 노송들 울창

석남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청운교까지 좌우로 노송들이 울창하다. 일제 때 송진을 채취한 생채기들을 안고 있는 것만 봐도 80~100년을 오르내리는 노령이다.

우리나라 소나무의 형태를 지역적으로 나눌 때, 경주를 중심으로 울산과 포항지역 소나무를 흔히 안강형 소나무라고 한다. 안강형 소나무의 특징은 키가 작고, 줄기가 굽었으며, 수관이 빈약한 난쟁이형 소나무이다. 그러나, 이곳의 소나무들을 지역형으로 단순히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키도 크고, 줄기도 비교적 곧고, 수관도 곧아서 재목감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석남사 소나무의 원형은 인홍스님 부도 주변 등등 곳곳에서 관찰된다.

소나무 군락에 이어 눈에 띄는 것은 계곡 주변의 서어나무 군락이다. 수령이 지긋하여 줄기의 모양이 저마다 기기묘묘하다. 일주문과 청운교 구간의 큰키 나무들로는 굴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와 같은 참나무들과 전나무, 느티나무, 말채나무, 개서어나무 등이 있다. 그 밖에 노각나무, 팥배나무, 개옻나무, 때죽나무, 당단풍나무, 함박꽃나무, 물푸레나무, 산벚나무, 비목, 노린재나무, 사방오리나무 등이 어울어져 있다.

서어나무와 개서어나무는 매우 비슷하다. 잎의 끝이 꼬리처럼 길고 잎의 표면에 털이 없으면 서어나무, 잎의 끝이 예두로 되는 경향이 있고 잎의 표면에 털이 있으면 개서어나무이다. 서어나무는 북쪽지방에, 개서어나무는 남쪽지방에 많다. 대체로 서어나무는 산의 아랫쪽에, 개서어나무는 좀 높은 곳에 자란다.

오른쪽 탱자나무 생울 안에는 꽤 넓은 밭이 자리하고 있다. 석남사는 수행처답게 '一日不作 一日不食(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청규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 밭은 대중들이 직접 농사 짓는 곳이다. 이곳 말고도 백장청규의 현장이 여러 군데 있다.

경내로 들어서는 길목에 청운교가 자리하고, 그 아래로 계곡이 흐르고 있다. 울산 태화강 100리가 여기서 비롯된다.

'울주, 밀양, 청도의 꼭지점인 해발 1,240미터의 가지산에서 서남쪽으로 발원하여 석남사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태화강은 산이 깊고 울창하여 웬만한 홍수에도 물빛이 흐리지 않았다'

김원일의 장편소설 <늘푸른 소나무>에 나오는 이 구절은 지금도 여전히 논픽션이다.

청량한 물줄기는 상북-언양-범서를 지나 울산 시내를 관통하여 울산만으로 흘러든다. 예전에는 연어가 태화강을 오르내렸다. 1960년대 울산이 공업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사라졌다가 최근에 수질이 개선되면서 방류한 연어들이 회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운교 아래로 계곡 따라 내려가면 화강암 암반이 층층이 깔려 있고, 거기에 크고 작은 소폭들이 물을 쏟아내고 있다. 한겨울인데도 날씨가 푸근해서 얼음 녹은 물 소리가 청아하다. 몇 마리의 버들개들이 조심스레 나와 놀고 있다.

청운교 아래 1급수 어종인 버들개 서식 생태 관심 필요

버들개는 동해안 쪽으로 흐르는 하천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버들치와 외모가 너무 비슷해 구별하기 힘들다. 두 종의 차이점이라면, 버들치에 비해 버들개는 비늘이 작고 많으며, 주둥이는 비교적 길고, 주둥이 끝이 약간 뾰족한 편이다. 그렇다고해도 전문가들이 아니면 구분이 잘 안 된다. 1급수 어종이라 수질에 민감한 만큼 석남사에서 방생 차원에서 버들개의 생태 환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석남사에서 가지산 능선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가는 길과 다리를 건너지 않고 심검당 앞을 지나 계곡으로 오르는 길이 그것이다.

금당은 옛 동인암 터에 세워진 선방이다. 금당 앞으로는 노보살 같은 늙은 벚나무가 자리하고, 뒤로 눈맛이 좋은 대숲이 병풍처럼 둘러있다.

대웅전 앞 화단 좌우에 두 그루의 금목서가 서 있다. 늘푸른 난대수종이지만, 추운 겨울이라 기가 많이 죽어 있다. 이 밖에 경내에서 볼 수 있는 상록수종으로는 호랑가시나무, 서향 등이 있다.


가지산 석남사 금당.

대웅전 뒤에는 엄나무로 만들었다는 구유가 있다. 72센티나 되는 지름을 미루어보면 이 나무가 살아 있을 때는 지름이 적어도 1미터, 키는 낮아도 25미터는 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정도 몸집의 엄나무는 신목(神木)이 아니고는 요즘 찾아보기 어렵다.

보물 제369호인 도의국사 부도탑은 대웅전 뒤로 호젓한 공간에 모셔져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장흥 가지산 보림사에 있는 보조선사 부도탑과 흡사하다. 도의선사의 손제자가 보조이니 극히 당연한 일이다.

광나무가 부도 주변의 생울로 둘러쳐져 있다. 광나무는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아담한 수형의 관목이다. 수형과 꽃 모양과 열매가 쥐똥나무를 많이 닮았지만, 사철 푸른 아열대 나무라는 점이 다르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는 여자같다고 하여 '정목(貞木)' 또는 '여정목(女貞木)'이라 불러왔으니, 비구니 사찰에 어울리는 조경수라 하겠다. 또, 생장이 빠르고 맹아력이 강해서 수형을 마음대로 다듬을 수 있으므로 남부지방 사찰에서 생울타리를 조성하는데 알맞은 나무라 하겠다.

석남사에는 선방이 셋 있다. 1년 결사도량으로 쓰는 금당선원과 안거 수좌들의 공간인 정수선원과 노장들의 선방인 심검당이 그것이다. 심검당은 경내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자리해 마치 별도의 암자처럼 느껴지는 곳이다.

심검당 뒤 골짜기에 불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부도전 조성공사인 듯 보인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사 후에는 생태복원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석남사 주변의 겨울철 조류상은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박새류와 딱따구리류가 우점하는 가운데 때까치 등 몇 종류가 사하촌 주변에서 관찰된다.

때까치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는 텃새이다. 여름에는 산속에서 번식을 하지만, 겨울이 되면 야산의 낮은 관목림으로 내려와 먹이를 구한다. 겨울철에는 북쪽에서 먹이를 찾아내려온 무리가 있어서 개체수가 더 늘어난다. 먹이를 잡아 나무가지 등에 꽂아 저장하는 습성이 있다.

가지산 정상 30만평 철쭉 군락지 노거수 44그루 천연기념물 지정

가지산 석남사 지역의 대표적인 군락으로는 아래쪽부터 서어나무, 소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군락이 있다. 소나무 군락에는 철쭉, 조릿대, 굴참나무들이 함께하고, 신갈나무 군락에는 미역줄나무와 생강나무 등이 함께 한다.

석남사를 지나 옥류천을 끼고 능선으로 오르는 구간에는 졸참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굴참나무, 가막살나무, 물푸레나무, 노박덩굴, 소태나무, 서어나무, 철쭉 등이 관찰된다. 군락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노각나무도 많이 눈에 띈다.

가지산 철쭉 군락지는 울주군과 밀양시와 청도군의 경계를 이루는 정상 주변에 약 30만평이다. 그 안에 약 20만 그루의 철쭉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군락지 안에는 키가 5미터를 넘고, 수관의 폭이 10미터를 넘는 수령 350~500년의 노거수 철쭉 44그루도 있어서 지난 2005년도에 천연기념물 제 462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몇 해 전 산불로 마지막 남아있던 주목이 죽은 뒤 뜻 있는 단체들이 나서서 가지산의 주목 복원사업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석남사 옥류천.


개서어나무.


서어나무 줄기.

한국최초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 한 불 교 웅 변 대 학
제1기생 모집
◆본 대학 총장 : 제주도 약천사, 단양 광덕사 회주 혜인스님 ◆본 대학 학장 : 백용사 주지 해봉스님

부처님께서 시방세계 무명 중생들을 제도하실 적에 진리(8만 대장경)를 부르짖는 불같은 사자후가 있었기 때문이라면....
오늘의 연단에 선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흥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고저 한다면 사자후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웅변수련과 교육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를 양성코저 함.

모집인원	자 격	제출서류	강의 시간 및 강의 장소
· 웅변학과 50명 · 특 별 반 0명	· 각종단승려(비구,비구니,법사) · 말을 못해 꼭 웅변을 배우고자 하는 재가 불자 · 기업인, 공무원, 사회, 정치지망생등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2장 · 승려증 사본 1장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까지(3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10시까지(3시간) · 총강의 시간 : 6개월(144시간) · 강의 장소 : 백용사 대법당

내 용	교 수
· 웅변(법문, 연설, 식사, 사회)이론과 실기 · 원고작성법 (각종행사, 원고내용)이론과 실기 · 임기웅변(3분 스피치) 소참 법문 · 강평(개인 장점, 단점)	· 제주도 약천사, 단양 광덕사 회주 본대학 총장 혜인스님 · 백용사 주지 본대학 학장 해봉스님 · 웅변을 30여년간 해 오신 해봉스님 직강 · 큰스님, 웅변교수 초청 특강

4. 입학개강 일시 2007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 백용사 대웅보전
5. 등 록 금(6개월) 일금 육십만원정
6. 본대학 이수시 본 대학 소정 졸업장 및 강사 자격증 수여
7. 원서 교부처 2007년 1월 31일부터 ~ 2007년 3월 4일까지(선착순)

부산시 사하구 하단 2동 531-14 백용사 전화 : 051)204-0477, 018-565-2042 / 인터넷 : www.baekyongsa.com
대 한 불 교 웅 변 대 학 총 장 혜 인

수행 다이어트 특수 비법 공개!
71회 3000배 용맹정진
샘솟는 힘! 맑은 머리! 상쾌한 몸!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립지 않으며, 힘이 솟아나는 특별한 3000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유일의 3000배!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날 짜 : 2007년 1월 27일(토) 저녁 9시 ~ 2007년 1월 28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 수련복(100% 면 소재 하의)2매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청견스님 011-9088-9449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군자역방향 100M GS광진주유소 2층
지하철 5호선 군자역 6번 출구 어린이대공원정문방향 200M GS광진주유소 2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cafe.daum.net/sorisan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자 모집
복(福)중에서 복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출가하여 사홍서원의 원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1)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5세 이상 55세 이하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조계종 종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연락 이메일 : muryangsa@empal.com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행스님

부처라는 것은 이름이요 부처 없는 것이 부처다!

초를 켜고 불을 밝히는 이유?

문 부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하셨지만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2007년 한 해가 또 밝아 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다른 사찰에서도 그렇지만 선원에서도 촛불재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년기도회가 아니고 촛불재인지요? 그리고 특별히 초를 켜고 불을 밝히는 연유가 무엇인지요?

답 그러면 왜 우리가 정월이면 촛불재를 올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불이 그렇게 귀중하고 그런가 하는 것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생명체가 생겨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 있었을까. 우리가 바람과 흙과 물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세 가지가 모두 한데 협조하는 바람에 그 가운데서 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불이 생겨서 곳곳마다 불이 일어나고 그러니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둘러싸이게 돼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돼 있고요. 가만히 보세요. 지수화풍의 수분과 흙과 바람과, 바람이라면 즉 공기와 모든 게 종합되지 않는다면 생명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한데 종합됐기 때문에 흙을 갖다가 그냥 오래도록 쌓아 놔도 그 흙 속에서 생명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생명체들이 그렇게 해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죠.

생명체들이 생겨나기만 했으면 또 뭘 합니까? 생겨나 가지고 그 모든 게 조절이 되질 않아서, 크기만 하고 조절을 못하니 차원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먹히는 놈도 그렇고 잡아먹는 놈도 그렇고, 무슨 차원의 질서라든가 이런 게 없이 모든 게 그렇게 아수라장이 돼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지수화풍도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하나가 그 마음이 있는 거라, 모든 게 종합이 돼서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이건 개벽을 해야만 되겠다. 말하자면 개벽이 아니라 개혁이죠. 개혁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 생명체들로 하여금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즉 말하자면 개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 개혁을 한 거죠.

개혁을 하고 나니까 어떠한 것이 생겼느냐 하면 질서도 지키게 됨으로써 감각이나 지각이나 시각 · 촉각 · 청각 · 미각 이 여섯 가지에 달하는 문제들이 제각기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차원에 따라서 여섯 가지가 다 등장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여섯 가지가 등장이 된 것도 있고, 차원에 따라서 세 가지만 된 것도 있고 두 가지만 된 것도 있고 한 가지만 된 것도 있고, 그 차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개혁을 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을 조절하고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문에 들게 한 것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다 보니까 그때에 태어났던 생명체들이 개혁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다시 태어난 짐승들은 모두가 소식(小食)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사는 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자기 자신들의 생사를 거론할 수 있게도 됐답니다.

> 촛불 하나 켜는 데
> 자기 마음과 더불어
> 조상의 마음도 밝아진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는 생사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나중에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 가지고 생사를 논의하게 되다 보니까 아, 이 불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이 불성이라는 것도 귀중하지만 최초에 우리가 어디서 생겨났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됐죠. 먼저 태어나서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사일들이라든가, 사람이 살아나가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하는 이 생활 도법을 그대로 익히면서, 또 가르침을 받아 가면서, 연쇄적으로 차원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성이 근중한 줄 알게 됐더랍니다.

우리 이 불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과거 몇 억겁 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수화풍으로써 뭉쳐서 지수화풍을 또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으로부터 와서 지수화풍으로 또 가죠. 지수화풍으로 또 가면 사대(四大)가 흩어져 버려 지수화풍 자체가 제각기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소립니다. 즉 말하자면 불바퀴다 불기둥이다 이런다면 불 하나의 기둥에서, 쉽게 말해 그 불바퀴에서 모든 게, 마음이라는 입자가 나간다면 그게 바로 또 불바퀴가 되고 또 원자가 됩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그 생명의 창조도 역시 마음으로써 그 원자, 근본 하나에서 또 입자로 종자를 만들면 그 종자가 씨가 되고 씨가 돼서 싹이 되고 싹이 돼서 또 종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퍼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촛불재를 그렇게 귀중하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촛불재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써 마음과 더불어 자신과 즉, '자(自)'는 이 몸이 되고 '신(神)'은 자기 불성(佛性)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 신이 다 둘 아니듯이 촛불재를 하는 것도 마음에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들질 않게 되죠. 마음에 있으니깐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 가설이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게.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것도 모르니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알고 넓고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도 내 마음이 밝혀지면 그 마음도 밝혀진다는 얘깁니다. 자식을 둔 사람들은 또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부모라는 가설이 돼 있고. 그것이 자연의 마음의 가설입니다. 우리가 전기 가설을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듯이 우리가 스스로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가설이 돼 있는데 형제간에는 부모와 자식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덜 가는 겁니다. 친척도 손바닥 다르고 손등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덜 가는 겁니다.

> 전체가 다 가설이
>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 넓고 지혜롭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 데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만 밝아질 뿐 아니라 자기 마음도 밝아져서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촛불입니다. 더군다나 조상님들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쓰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모습 쓰고 나온 대로 대접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잘 생각들을 해 보십시오. 항상 내가 얘기하죠. 개로 태어난다면 개 대접밖에 못 받고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짐승 대접밖엔 못 받는다. 돼지로 태어난다면 돼지 대접을 받을 거고 닭으로 태어난다면 닭 대접밖에 못 받는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천하게 태어나면 천한 대접밖에 못 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망 짊어지고 한 철 나와서 모두 모여서 놀다가 해가 지면 제각기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러한 데에 따라서 금방 찰나에 벌써 한 생이 지나고 무대가 내리면 벌써 요 다음의 모습은 자기가 사는 데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정해지죠. 그러니까 요 한동안 우리가 혼자 와서 모두 같이 놀다가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꿈도 생시도 둘이 아니란 얘기죠. 둘이 아닌 까닭에 여러분이 꿈을 잘못 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어허! 이거는 주인공의 뜻이니까 그것도 잘되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구정물을 그냥 삽시간에 맑은 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체는 바꾸어 놓을 수 없어도 바로 그 뜻은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체로 나오는 게 말갛게 나온단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아, 한 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아주 값진 내 보배를 내 보배로 활용해서 살아가시면서 발전하고 또는 체험하시고, 장래의 2세들한테도 그 모든 묘법이 미치게끔 하고 부모에게도 손색이 없이 밝아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것이 귀중하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거기서 조금 조금 챙겨서 자기가 잘 생각해 보면 알 바가 있습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22면으로 계속

"사과드립니다" "더 좋은 신문 만들길…"

한마음선원 · 본사 '폐간 위기' 딛고 공동 발전 모색키로

한마음선원과 현대불교신문사가 '폐간 위기'를 극복하고 불교계 최고의 신문 만들기에 뜻을 모았다.

현대불교신문사 직원은 1월 21일 오전 11시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열린 정기법회에 참석 '존경하옵는 한마음 선원 스님과 신도여러분께 올립니다' 제하의 문건을 발표했다.

직원 대표로 나선 임연태 편집부장은 문건을 통해 "저희 현대불교 직원 모두는 폐간 소식을 접하고 냉철하지 못한 마음으로 여러 상황들에 대처하면서 스님들과 신도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뉘우치고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직원들의 가슴에는 현대불교는 불교계 최고의 신문이라는 자부심이 충만했기에 폐간 소식은 나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망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짜 맞추기식 실사, 의도된 폐간, 자본금 회수를 위한 폐간, 비불교적인 처사, 심지어 선원 내부문제로 인한 불합리한 결정 등의 사실과 다른 논리를 펼치게 됐습니다. 또 발행인 스님과 협의 없이 '폐간' 관련 기사를 지면에 반영해 파장을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의한 실사결과를 듣고서, 선원이 폐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선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귀한 돈에 대한 주인의식이 미흡했던 점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경영상의 많은 과오와 막대한 경영부실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게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께서 폐간 유보결정과 함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해진 기간 후에도 약속드린 바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선원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한마음 선원 주지 혜원 스님과 전국 지원의 일부 지원장 스님 그리고 신도 2천여 명은 현대불교 직원들을 큰 박수로 격려했다. 주지 혜원 스님은 "현대불교가 잘 될 수 있는 길은 직원들에게 있으니 그 길을 잘 찾아보라"고 격려하고 "스님과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현대불교신문 새출발을 축하합니다

서 울 승 가 사

주 지 이지성(中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1동 628-3호
전화 02)2292-3418 팩스 02)2282-3418

호 명 산 감 로 사

주 지 이지성(中九)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1번지 전화 031)584-0117 팩스 031)585-5747
카페 주소 cafe.naver.com/kamrosa 또는 호명산 감로사

한국불교화엄종

경각산 구이 극락도량 정 각 사

주 지 벽 송

신도회장 정강희

부 회 장 백봉선

사부대중 일동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176번지 063)222-2555~6

부처가 없기 때문에 삼라대천세계에 꽉 차 있다!

☞21면에서 계속

아내가 교회에 가자고 하는데…

문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의 집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저와 함께 교회에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교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인 상태지만 진리는 하나라는 생각에 집사람이 교회에 갈 때 보통은 함께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으라고 해서 세례도 받았고, 두 아이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장모님도 독실하신 분으로 이웃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한마음선원 법형제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도 등록도 안 했지만 대행 스님의 설법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그날만 참석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교회에 안 가려고 핑계거리를 늘상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을 집사람이 막지는 않지만 너무 힘겨워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처사인지요.

답 여러분이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들어도, 시집 쪽에서 불교를 믿으면 불교로 따르고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로 따르세요. 따르되 타력 신앙으로 믿진 말고 자기 주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기 가는 데마다, 기독교 교회에 앉아 있어도 네 자리가 내 자리고 불교의 법당에 와 앉아 있어도 네 자리가 내 자리니까 그 믿음을 잊지 말고 지조를 가져라 이거죠. 사람이 그렇게 얄팍하게 기독교 불교를 따져서 종교의 이름을 짓고 싸운다면 여러분은 부처님이 가르친 뜻은 하나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윤회에 말려서 수억겁을 거쳐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만 '부처는 없다! 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꽉 찼다.' 이겁니다. 만약에 부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가 꽉 찼지 만약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가 꽉 찼을 수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넘나들면서 그대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이름이요, 부처 없는 것이 부처란 뜻은 이 세상에서 아주 제일가는, 세계의 왕을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남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아내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감싸 주면서 사셔야 합니다. 지금의 부부로만 인연이 된 게 아니거든요. 형제이기도 했다가 딸이기도 했다가 아버지이기도 했다가, 그렇게 수만 개로 나투면서 수만 이름을 가지고 이날까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머니예요. 그래서 육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길러 주는 아버지는 태양과도 같고 바람, 공기와도 같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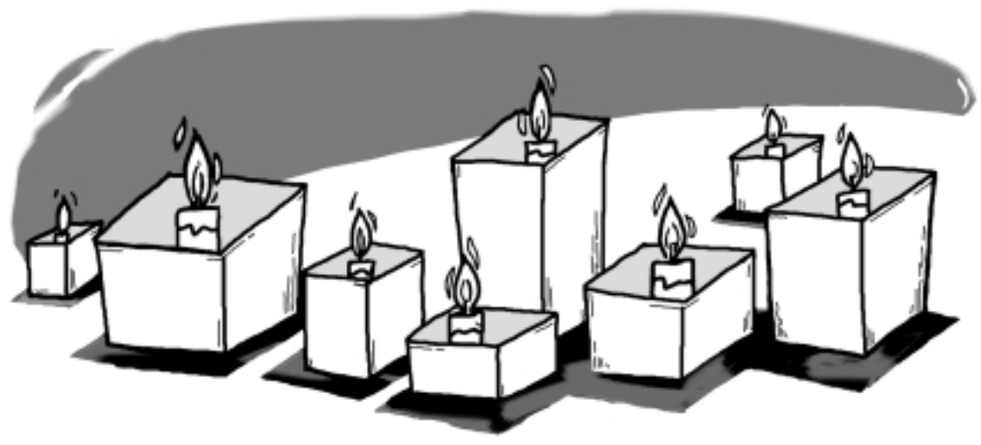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절대적으로 거저도 없고 우연히도 없고 꼭 내가 한 것만큼 내가 하는 대로 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의 마음은 항상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속을 썩다 보니까 전자에 길러 주신 부모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굳이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한마디 합니다.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누구를 막론해 놓고 자식으로서 의지만 하고 그냥 살다가 자기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속을 썩고 또 행복하고, 이런 양면을 우리가 다 볼 때에 '아유! 우리 부모가 나를 기르고 우리 형제들을 기를 때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삼분지일은 알 수 있단 얘깁니다. 삼분지일을 알면 다 아는 거죠. '아하! 내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속을 썩다 보니까 아이구, 우리 부모도 그러셨겠구나!' 그러니 지금 부모만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렇게 자비로웠던 부모의 마음, 또 여러분이 자식을 두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한데 합쳐서 뭉쳐진 여의주 구슬, 보배, 그것이 불성 자체에 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부처님한테 갈 필요도 없겠네요." 이러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법당에 가든지, 가톨릭교나 기독교를 믿고 성당이나 교회에 가더라도 주처는 바로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런데도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기복 아닌 게 없어요. 이러니 이거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보거나 형상을 보고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부처님 믿으러 갈 게 없지, 형상을 믿지 말라니까."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죠. 당신들의 몸도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닙니다. 이 도리를 아주 한생각을 돌려서 잘 믿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법당에 가더라도, 만 불(萬佛)이 놓여 있더라도 내 한마음의 일 불(一佛)입니다. 만 불도 일 불이요 일 불도 만 불입니다. 이 도리를 꼭 알아 둬야 되겠습니다.

불사를 많이 하는데…

문 요즘에 가는 곳마다 대규모 불사가 진행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이왕 짓는 것 크게 짓자고 마치 유행처럼 앞을 다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작 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한국 불교의 어떤 인연을 말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사를 시작하는 사찰이면 으레 모연문을 내고 기원법회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원의 경우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무소 보살님께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 보살님 말이 "부처님 일인데 잘되겠지요."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딴은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부처님 사업이라 하지만 마음을 내고 손발을 놀리는 것은 인간의 일인데 이렇게 조용해도 여러 지원에서 펼치는 불사들이 계획대로 잘되는 것인지요?

답 나는 예전에 저 상원사(上院寺)를 지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놈이 있다면 지을 것이고 네놈이 없다면 못 지을 것이지, 그 뭐 나만이 지으라고 등에다 써 붙였냐?' 안 그렇습니까? 왜? 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귀찮을 거란 말입니다, 괴롭고. 하지 못하니 참 괴롭고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조금 하지만 그것도 어떤 때는 "내라! 내라!" 하면 아주 괴로울 겁니다. 외려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내버려두는 게 낫지.

그리고 또, 아래로는 그렇게 내버려두고 편안하게 생각하게끔 해 주는 게 좋고, 위로는 '모두 너의 집인데 너가 있으면 할 거고 너가 없으면 못 할 거지, 뭘 그래?' 하고 하는 거지, 아니 '내 이 집을 못 지으면 꼭 너를 죽인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건 내 집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의 집이기 때문에 여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다 여래입니다. 여래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래의 집을 짓는데 여래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왜 애를 씁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내가 가끔 했죠. 양 무제가 달마 대사한테 묻기를 "이렇게 많은 시주를 하고 절을 지어드리고 스님들의 옷을 해드리고 밥을 해드리고 이렇게 많은 시주를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허허허. 그랬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 시주입니다. 헛 시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놔도 또 지원의 스님한테다 줘도 그 스님 자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스님 자체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 자기 거를 자기가 한 거지, 자기네 그 가족들한테로 무심통장을 한 거지 그건 개별적인 우리들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주를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심코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스님네들을 준 게 아니고 불사를 하라고 줬어도 그건 앞으로 자기 불사를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이 중들의 불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는 양 무제더러 네가 이 시주를 하고, 네가 시주한 거는 대가를 바라고 또 시주를 내가 했다고 만백성들한테 풍기고 그러고 했으니 무슨 시주가 공덕이 될 게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 하나도 한 게 없다 이거야.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시주를 해도 누가 요만한 거 하나 거저 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리 한마음선원의 식구들은 말입니다. 거저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네들 자기 밥들 먹고 사는 스님네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면 남들이 갖다 주는 밥 먹고선 왜 자기 밥들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자기 할 일을 다 잘하고 가니깐,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니깐 그 밥을 자기가 내려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눈을 희번덕거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 차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중한 내 부모가 내 종자를 줬고 그 종자로 인해서 몸을 탄생을 시켰는데, 그 몸을 탄생을 시킨 것도 제대로 못 가지고 갈 걸, 영원히 가지고 못 있을 걸 왜 그거를 짐을 지겠습니까? 내가 왜 짐을 집니까? 여러분의 짐을 왜 내가 집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연히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거저도 없고, 우연히도 없고 꼭 내가 한 거만큼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전기 신(편)입학 모집**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지정 되었습니다.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을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실기, 이론 강의

학 년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월,수	오후 3시-5시	50명
2학년	각배과	목	오후 3시-5시	50명
3학년	영산과	금	오후 3시-5시	50명
불교무용 (작 법)	바라/나비춤/법고춤	화	오후 3시-5시	50명
불교의식 (실 기)	시련/대령/관욕 등	화,금	오후 5시-7시	20명
불교의식 (이 론)	불교의식 이론	화	오후 1시-3시	재학생
불교음악 &무용 (이 론)	불교음악/ 불교무용이론	월	오후 1시-3시	재학생

● 교수진 : 김구해(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마일운(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이기봉(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심만춘(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효성(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이수자)
김법현(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영산재 이수자)
한해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작법 이수자)

2. 응시자격 : 승려, 일반인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1)입학원서
[옥천범음대 http://www.bongwonsa.or.kr/ 다운로드받기]
● **합격후서류** (1)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2)증명사진 3매(반명함)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2월 1일 ~ 3월 2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및 인터넷 접수
tnfus0821@naver.com

6.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입학 및 개강일
2007년 3월 5일 월요일 (봉원사 강의실)

8. 특전
●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9. 문 의 처
120 -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392-3234 / FAX 02)393-9450

이수자 및 전수생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이수자(12명) 장병호(청봉) 조광현(혜산) 김재운(선각) 조명환(효광) 오세균(보운) 박성호(처명) 변호근(춘광) 류지언(화산) 심 인(지허) 김혜숙(선혜) 한정미(해사) 신금자(주혜)

전수생(17명) 조보현(고담) 박현일(진현) 이주상(성진) 김광화(광호) 엄인용(인성) 김동찬(동인) 서준석(혜성) 이차복(혜명) 김태곤(만결) 김성욱(구수) 김근선(보덕화) 이영근(법일) 방한열(진원) 김창수(행준) 김민정(동환) 김규운(적광) 장완순(행범)



불자 세상보기

이 기 선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문화유산 지진대비 실태는?

1월 20일 오후 8시 56분 강원도 평창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은 서울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건물의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 다행히 인명이나 국가기간시설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지진 학자들은 1990년대 이후 한반도에 지진이 잦고 강도가 더 세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0건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6건이 되었다.

지진 관측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잡히지 않던 지진까지 감지돼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났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웃 나라의 지진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특정한 시기에 많은 지진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지진 폭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30~50건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학자는 한반도 땅 밑에 '지진의 눈'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4개의 지각판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균형이 깨지면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창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퍼져 지진 연구의 기초가 되는 단층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우리나라 단층 연구는 일제 강점기 또는 1960년대 만들었던 자료가 대부분으로 그 이후에는 대규모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 대책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진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나 산사태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집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하는 등 생활전반에 걸쳐 지진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진 피해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실무적인 점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기본적인 것으로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지진 피해로부터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일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무적인 일로는 문화유산의 종류와 그 성질 또는 형상에 따라 적절한 보존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표에 건립된 건조물인 성곽, 목조건축, 탑을 비롯한 석조물 등의 도괴를 방지하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박물관 등 문화유산을 전시하거나 수장하고 있는 시설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지진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시설 등의 규정을 정하고 이에 다른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전시 또는 수장하고 있는 기관의 관리규정에도 지진에 대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일도 빠질 수 없다. 예컨대 내진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흔들거나 무너질 경우 진열장 속에 전시 중인 유물의 안전을 위한 전시방법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전관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어리석은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불자의 눈

불교 세계화 내실 찾기
'진면목' 전할 지도 그리자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이고 모든 발전의 코드가 세계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종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서양의 종교가 동양의 정신을 뚫고 들어와 영역을 넓히고 있고 동양의 종교가 서양의 생활과 가치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불교의 간화선도 서양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철학 공부'의 수준에서 접근했던 학자들이 실참수행에 푹 빠지기도 하고 한국의 스님에게 선을 배우고 출가한 서양의 젊은이도 많다.

종교는 지역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을 뛰어넘어 다른 문화에 큰 폭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종교이기도 하다. 종교가 말하는 주제가 인간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는 인간의 본래 면목을 추구하며 현상계의 허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물질 본위의 사고를 가졌던 서양에 큰 파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바로 한국불교를 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최근 조계종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볼 때, 24개의 교구본사 가운데 8개 교구본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선사 한마음선원 등 7개 사찰도 국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JTS 등 11개 단체도 국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조계종 사찰은 137곳에 포진되어 있는데 북미지역이 84곳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 지역이 36곳이다. 조계종을 범위로 한 조사였으므로 다른 종단과 단체의 국제 교류활동을 합하면 수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조계종이 파악한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수치상으로 따지면 해외 교류의 초석을 다진 셈이라는 평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교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국제교류의 방식이 각종 지원을 위한 경우가 많고 해외 사찰이나 문화 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우의 확대인 경우가 그 다음이다. 국제교류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것이라면 지원이나 구호 사업과 문화교류의 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불교의 자비 봉사정신을 세계 곳곳에 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타행과 더불어 한국 불교의 내면적 진면목을 제대로 세계에 전할 때 진정한 세계화가 이뤄진다. 무엇이 한국불교의 진면목일까? 간화선이나 원효의 사상, 호국불교의 전통, 문학이나 다도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 등 많은 것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진면목을 세계무대에 맞게 정돈하고 체계적으로 전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남이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식의 세계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것을 세계무대에 내놓기 위해서는 세계무대를 살살이 분석하고 정확한 보급로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에 내놓은 자료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유용한 '지도'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들었다

교육계의 '이권'

차라리 조금 배워 도리를 이해할지언정, 많이 배우기만 하고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열반경〉

'오호 통재라…'.

특정 과목 교사와 단체들이 2009년부터 시행될 새 교육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부기관과 국회의원까지 가세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로비와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의 기본 틀을 정하는 교육과정이 밥그릇 싸움터가 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교육부총리가 "교육과정 개정은 각계 이해가 얽힌 권력투쟁"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을까.

교육부는 지난주 공청회에서 고 2·3학년의 필수과목 수를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자 교육부총리가 현행 체제 유지안 발표를 통해 물러섰다. 그럼에도 교사나 교육단체들은 자신들의 담당 과목만큼은 꼭 필요하다며 수업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 과목이 중요하다고 떠들어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견고히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의도대로 만일 필수과목 수를 늘린다고 생각해보자. 학생의 내신 부담은 커지고, 새 과목의 사교육이 번창할 것은 뻔하다.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텐데도 '권력다툼'을 벌이니,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비인기 과목 교사들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으나, 따져보면 세상에 필요치 않은 과목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우리의 교육목표와 방향이 무엇이냐에 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과목이 정해져야 한다. 부처님 말씀처럼 교육의 참뜻과 올바른 도리를 다시금 돼새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할때다.

■김주일(취재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불교복지' 인프라 더 확대해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양극화 해소'일 것이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아마도 경제 살리기와 빈부격차 해소에 관한 공약이 이번 대선의 당락을 좌우하는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는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욕구와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까지는, 제도적 틀만이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틈새 메우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종교단체·비영리단체들의 사회복지 참여가 공공복지와의 상호 보완·협력관계 속에서 사회전체의 우리나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종교계의 참여는 국가에서 볼 때 훌륭한 민간자원일 수밖에 없다.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도 지역사회는 종교의 사명을 완성시키는 이념적 실천의 장이기에, 지역사회를 통한 복지활동은 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종교계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2003년도 기준으로 천주교가 279억원(47.3%), 기독교가 170억원(28.7%), 불교가 97억원(16.5%)순으로 나타났다. 3개 종교가 전체 종교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 대부분인 92.5%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중 불교계는 이웃 종교에 비해 규모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 복지활동 체제에 돌입해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각 종단에서는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국내복지현장 지원 뿐 아니라 국제적 구호활동으로도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불교복지와 불교문화복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불자들은 평소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복지행'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 흔히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전에 희사를 하며 생활 속에서 복을 짓고 선행을 한다. 불자들의 희사금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후원금이 되며,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갈 희망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자비를 실천하는 봉사활동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채워지고 그 기쁨으로 내가 채워지는 행(行)이 된다.

현장체험 기회·차별화된 프로그램 늘리자

최근에는 불교계에서도 '1% 나눔 운동'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듯 불교의 생활양식과 사상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육바라밀의 행을 합으로써 나와 이웃을 도울 기회를 주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나눔과 참여를 위해 우리 불교 복지계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성직자 및 신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불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으로 교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화되고 차별화된 불교복지만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올 한해 불교 복지계가 연구·실천해 나가야 할 '화두'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불교는 전 국민의 공감을 얻는 '실천적 종교'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둥글고 밝은 복지세상 만들기'의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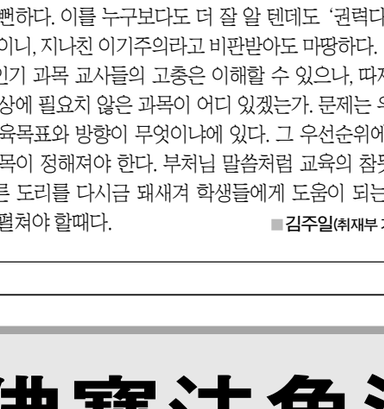
이미성(진각복지재단 기획실장·성북구의원)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 보급 안내

◎ 法象道(법상도)는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총기 사억팔만사백전장경 목록을 당나라 현장법사와 함께 서천에 가서 모셔온 가장 길하고 상서로운 흰코끼리(백상:白象)의 法道(법도)를 나타낸 것이다.

◎ 이 백상(흰코끼리:白象)의 둘레에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을 써서 조성한 법상도(法象道)는 불자라면 누구나 필히 한품씩 집안에 소장할 필요가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성품(聖品)이며, 길상품(吉祥品)으로서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과 함께한 법상도(法象道)는 한마디라도 영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라고 자은전 10권(慈恩傳10권)등의 자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법상도(法象道)의 가장 큰 영험은 특히 고증자료에서 "중생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집안에 두면 장경 전부를 읽는 공덕을 얻고, 무량제 불이 호위하시며 세세생생에 수복무량하고 일체 재해가 스스로 소멸하며 살아서는 소원성취와 호신용으로 죽어서는 극락왕생 보장책으로 그 영험이 크게 있다"하였다.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액자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의 효험
-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 액자는 집안에 거는 날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 재앙이나 재난을 미리 예방해 주는 효험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나 식구들의 건강이 염려되시면 불보법상도 (佛寶法象道)액자를 구하시어 집안에 걸도록 하십시오.
-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해 주고 예방해 줌은 물론, 어느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여 놀라는 일 등이 없을 것입니다.
- 이미 몹쓸병에 걸렸거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거나 호전시켜주는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소재 : 팔 패 - 고급 무늬목재
법상도 - 특수 금속판에 직접 조성,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보급가 : 20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종무원 055)943-6570 / 중부종무원 043)648-8942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원서교부 : 수시교부 및 입학 (교재비만 부담)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1월 30일 부터
□ 입 학 일 : 2007년 3월 5일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 교 예 술 대 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세계불교법왕청 몽골불교대학부설

세계불교명상센타

◆일 시 : 2007년 3월 24일 (토) 오후 3시 개원
(매주 토요일 저녁7시부터 철야정진)

◆장 소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185 상락향수도원
전화 031)584-0657, 010-8700-3619, 011-447-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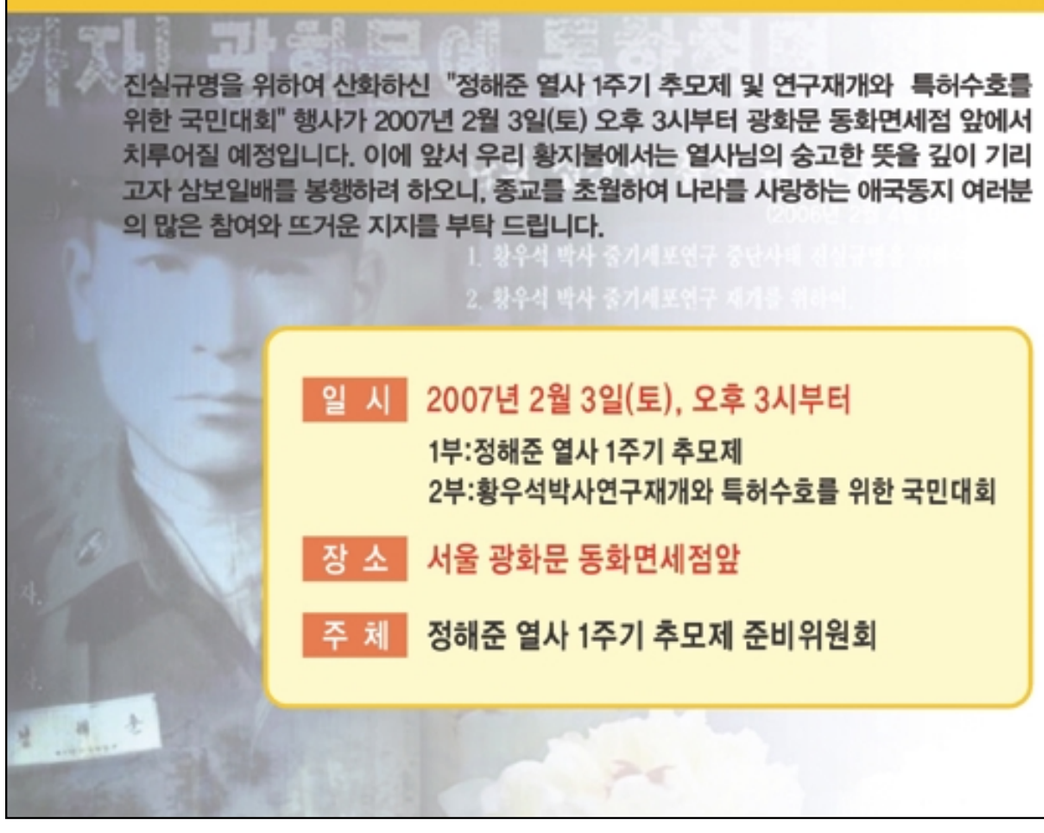
① 일반과정(건강 두뇌개발 단주, 금연, 비만크리닉 원하는 분)
② 전문과정(견성성불하여 생사해탈을 목적하시는 분)
③ 지도자과정(명상센타 개원하여 후배양성을 목적하시는 분)

※ 자세한 문의는 위 주소와 전화로 하세요

제1회 학생모집

◆모집인원 : 선착순 1백명
◆일 시 : 2007년 2월 28일
◆교육방법
①통 신 으 로 교재를 주고받고 월 2회만 등교함(통신비만 보시함)
②매 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3시 등교 - 두시간동안 강의듣고 108배 철야정진(명상)
③철 야 정 진 시 휴대폰, 라디오, TV, 술 담배 등 지참 절대금지
◆특 혜
①교 재 는 장학으로 실시하며, 근본 원시불교부터 시작하여 대 · 소승 불교를 체계있게 교육함
②보 다 고차원적 불교를 희망하시는 분 - (유학 · 전문반 · 대학 · 대학원)은 세계각국 불교대학에 안내함
◆문의처
본교 : 031)584-4170
경기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185번지 상락향수도원
서울교육원 : 02)969-241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한국불교금강선원

정해준 열사 1주기 추모제 및 황우석박사 연구재개와 특허수호를 위한 국민대회



진실규명을 위하여 산화하신 "정해준 열사 1주기 추모제 및 연구재개와 특허수호를 위한 국민대회" 행사가 2007년 2월 3일(토)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황지불에서는 열사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기리고자 삼보일배를 봉행하려 하오니, 종교를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뜨거운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1.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연구 중단사태 진실규명을 위하여
2.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연구 재개를 위하여

일 시 2007년 2월 3일(토), 오후 3시부터
1부:정해준 열사 1주기 추모제
2부:황우석박사연구재개와 특허수호를 위한 국민대회

장 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주 체 정해준 열사 1주기 추모제 준비위원회

조계사에서 광화문까지 삼보일배

(정해준 열사 1주기 추모제 삼보일배 봉행)

일 시 2007년 2월 3일(토) 오후 3시

장 소 조계사 대웅전 앞

행사일정
- 오후 3시 10분 조계사 대웅전 앞 약식법회
- 오후 3시 20분 조계사 일주문 출발
- 오후 4시 광화문 도착 예정

행진구성 선두 ← 삼보일배팀 ← 삼보반배 행진팀 ← 행진 및 전단지 배포팀

행사준비물
- 삼보일배팀(무릎보호대와 두꺼운장갑)
- 삼보반배행진팀과 행진팀(두터운 옷차림과 장갑 지참 하세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069537 예금주:이주영(황지불)
■황지불-지킴이님 011-222-9622
※자원봉사 하실 분들은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불 서울사무실: ☎(02)723-5126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충암B/D 4층 401호
황우석지킴이불자모임(황지불) : cafe.daum.net/buljahws